



맹현가
孟賢家



완순군의 손자 이해상과 신계완(22회)의 결혼사진
1933년



34 조복 朝服

Ceremonial Court Attire for Officials

19세기 말

확장 101.5cm 수구 56.5cm 품 53cm

뒷길이 138cm 진동 34cm

폐슬 23.5cm, 38cm 상 33.5cm, 78.5cm

조선시대 문무백관이 나라의 경축일 때나 조칙詔勅을 영표할 때 등 경사스런 의식에 착용한 것으로

최고의 백관 예복이다. 검은 선을 두른 홍삼紅衫, 청삼靑衫, 상裳과 폐슬蔽膝을 갖추고

여기에 후수後綬, 대대大帶, 각대角帶, 파옥佩玉을 갖추고 금관金冠을 쓰고 홀笏을 들며 혜鞋를 신는다.

순인純仁으로 지은 이 조복은 조선 말기 완순군 집안에서 착용하였다.

전삼후사의 하상이 중단인 청삼 위에 부착되어 있어 착용하기 편리하게 변화된 형태이다.

이남주 소장





35 단령 團領

Uniform with Round Neck for Officials

19세기 말

확장 90.5cm 진동 31cm

뒷길이 126cm 품 51cm

흉배 가로 18.5cm 세로 21cm

단령은 관복이나 혼례복으로 착용되었다. 관리들의 집무복으로 이용될 때는 가슴과 등에 사각형의 흉배를 달아 그 문양에 따라 문·무 계급을 나타내었다.

이 유물은 원순군의 단령으로 금사 쌍학 흉배가 달려 있어 당상관堂上官에 해당하는 종친임을 나타낸다. 아청瑯靑 운문사雲紋紗에 청색 안감을 대어 만들었다.

이남주 소장





36 원삼 圓衫

Ceremonial Robe for Wo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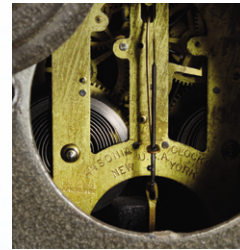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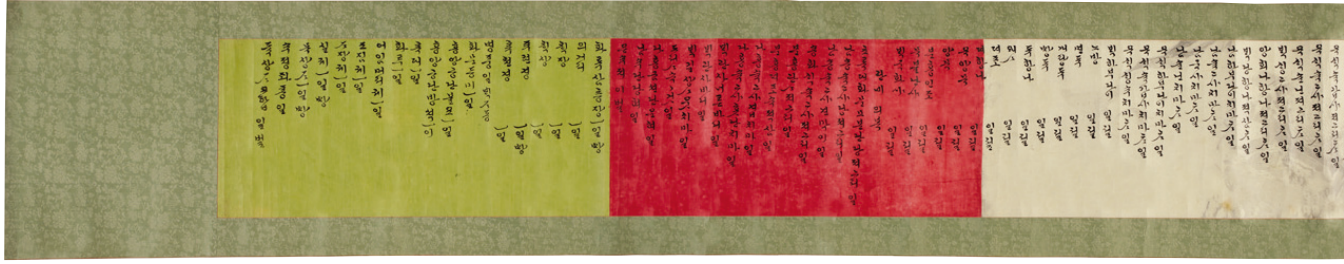
20세기 초

진동 26cm 품 46cm 화장 117.5cm

녹색 운학문 생고사 길에 소매는 홍, 황 금직단과 표주박 무늬 생고사 한상을 이었다.

대대는 홍색으로 운봉문 금박이 화려하게 찍혀 있고, 깃은 대금형으로 두개의 꽃모양 단추로 여렸다. 신계완동문이 1933년 결혼할 때 입었던 원삼이다.





37 물목 物目

Bridal Gift List

20세기 초

길이 34.2cm 너비 273.5cm

신계완동문의 혼례 전에 신랑댁에서 신부댁으로 예물 물목을 한글로 적어 보낸 문서이다. 민족두리, 금꾸민 국화잠, 금지환 등 다양한 종류를 홍화빛, 쪽빛으로 곱게 물들인 한지에 정성스레 적어 두록색豆錄色 화문단花紋緞에 표구하여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었다.

이남주 소장

38 탁상시계 桌上時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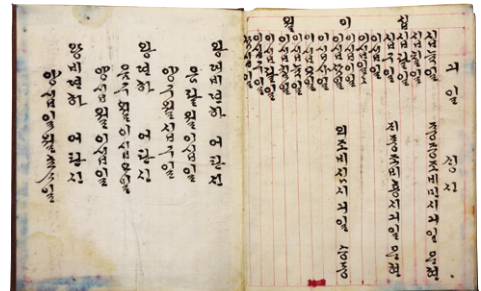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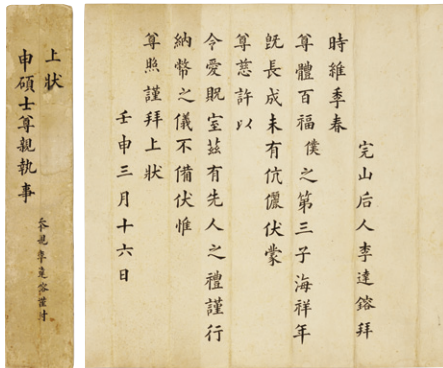
Table Clock

1882년

길이 12.3cm 너비 18.8cm 높이 23cm

고종이 완순군에게 직접 하사한 탁상시계이다.

이남주 소장



39 혼서 婚書

Letter for Marriage
20세기 초
길이 65cm

때는 바야흐로 늦봄이옵니다. 존체 안녕하십니까?
저의 셋째아들 해상海祥이 나이가 차도 배필이 없사온데,
높으신 사랑으로 소중한 따님을 아내로 삼게 하여 주시니,
조상의 예에 따라 삼가 다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남폐納幣의 의식을 행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임신申申 삼월 이십육일

이남주 소장

40 발기 件記

List of Ceremonial Schedule
19세기 말

길이 23cm 너비 18.6cm
월·일에 따라 집안의 대소사, 생신·기일 등을
국문 궁체로 기록한 발기이다.
신계완 동문이 받은 것으로
'왕단하 여탄신' 등 왕·왕비·대원군·대비 등
왕실 인사의 생신이 적혀 있다.

이남주 소장

이번 전시에 소개된 왕실집기는 영친왕비가 사용하던 물건으로 이남주(45회) 동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다. 은제 그릇, 보시기, 접시와 수저, 나이프, 포크 등의 서양식 집기에 금박을 두르고 오얏꽃을 새겨 대한제국의 아름다움과 품위를 보여준다.

이남주는 고종의 사촌이신 완순군의 증손녀이다. 이남주의 조부인 이달용님이 1920년 일본에서 거행된 영친왕의 결혼식에 조선왕실을 대표하여 참석하였고 결혼 10주년 기념식에는 조부와 함께 아버지 이해상님이 참석하는 등 영친왕비와는 각별한 인연이 있었다. 1963년 영친왕과 함께 귀국한 영친왕비는 이남주와 돈독한 친분을 나누며 돌아가실 때까지 가까이 지냈다고 한다.

왕실 집기



유럽 외교관에게 베푼 연회(명지대학교 LG연암문고 소장)



41 은제그릇

Silver Wares

20세기 초

길이 6cm 높이 3.3cm

영친왕비가 쓰던 은제 그릇으로

뚜껑의 중심에는 오얏꽃(李花)

양 옆에는 두 마리의 봉황이 정교하게 양각되었다.

이남주 소장



42 은제그릇과 칠기받침

Silver Bowls & Lacquered Stand

20세기 초

대) 입지름 12.1cm 바닥지름 4cm 높이 4.2cm

중) 입지름 10.5cm 바닥지름 3.7cm 높이 3.7cm

소) 입지름 9cm 바닥지름 3.3cm 높이 3.2cm

받침) 길이 6.7cm 높이 10.8cm

영친왕 결혼기념으로 만든 것으로 중심에는
오얏꽃 문양이 선명하게 음각되어 있고,
뒷면에 '왕전하 결혼기념' 이라고 쓰여 있다.

이남주 소장





43 화병

Silver Vase

20세기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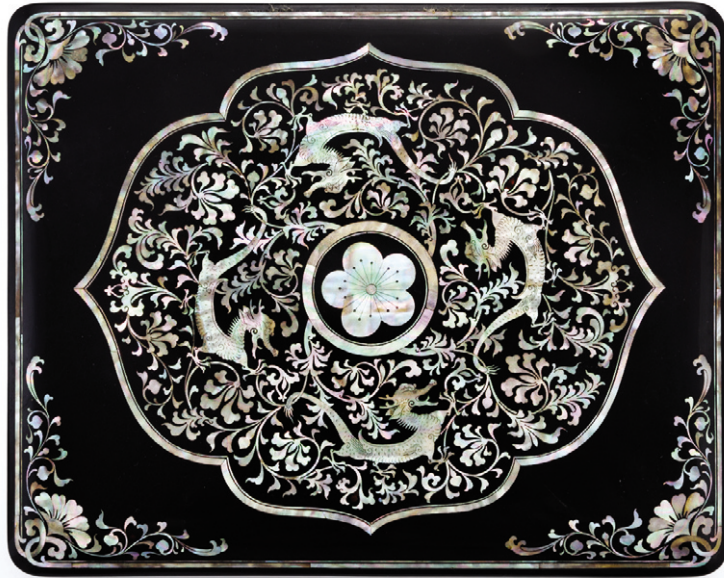
입지름 11.1cm 바닥지름 9cm 높이 24.4cm

영친왕 내외분이 유럽여행 기념으로 만들어 왕족들에게 하사한 은제 화병으로 내부는 금으로 도금되어 있다.

이남주 소장



영친왕과 영친왕비(국립고궁박물관 소장)



44 벼루함

Inkstone Case

20세기 초

길이 22.5cm 너비 28cm 높이 6cm

영친왕비가 쓰던 벼루이다.

자개함의 뚜껑에는 정교한 무늬가 새겨졌는데, 왕실의 상징인 오얏꽃을 중심에 두고 그 주위에 네 마리의 용龍과 만초문蔓草紋이 새겨져 있다.

이남주 소장



45 합

Bowl with a Lid
20세기 초
길이 9cm 너비 14.5cm
뚜껑 15.5cm
영친왕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En Lee」라는 사인이 있다.
이남주 소장

46 은제집기

Silver Wares
20세기 초
컵 입지름 6.2cm 바닥지름 6.7cm 높이 6.8cm
스푼 9.9cm 포크 12cm 식기 10cm
구해 왕자가 어렸을 때 사용하였던
유아용 은식기 일습이다.
이남주 소장

47 영친왕 7세 때 빛은 접시

Ceramic Dish Made by Prince Young
20세기 초
길이 9.3cm 너비 14.2cm 높이 2.3cm
이남주 소장



48 컵과 컵받침

Cups & Saucers

입지름 7.6cm 바닥지름 4.5cm 높이 7cm

받침 12cm

영친왕비가 덕혜옹주 칠순기념으로 손수 제작한 도자기이다.

칠기 받침의 뒷면에 '李' 자가 쓰여 있다.

이남주 소장



49 보시기

Ceramic Bowl
 20세기 초
 뚜껑 11.7cm 바닥지름 6cm 높이 7.5cm
 왕실용 보시기로 가장자리에 금테를 두르고
 그릇 뚜껑과 옆면에 오얏꽃 무늬가 있다.
 이남주 소장

50 · 51 은제집기

Silver Wares
 20세기 초
 길이 20.7cm
 왕실에서 쓰던 양식기로
 집기 끝에 오얏꽃이 새겨 있다.
 이남주 소장





52 · 53 은제집기

Silver Wares

20세기 초

나이프 20.7cm 포크 18.5cm

왕실에서 쓰던 양식기로

집기 끝에 오얏꽃이 새겨 있다.

이남주 소장



54 접시

Ceramic Plates
 20세기 초
 대 22.6cm
 소 15cm
 접시 가장자리에 금테를 두르고,
 금색의 오얏꽃 무늬가
 접시 앞면 또는 뒷면에 찍혀 있다.
 이남주 소장

55 · 56 은제집기

Silver Wares
 20세기 초
 포크 20.4cm 상아나이프 24.5cm
 왕실에서 쓰던 양식기로
 집기 끝에 오얏꽃이 새겨 있다.
 이남주 소장



57 은제접시

Silver Dish
 20세기 초
 길이 24cm 너비 33cm 바닥지름 23.4cm
 이남주 소장



58 은제집기

Silver Wares
 20세기 초
 스푼 20.4cm, 21.1cm
 집게 19.5cm
 왕실에서 쓰던 양식기로
 집기 끝에는 오얏꽃이 새겨 있다.
 이남주 소장

고종이 추진했던 복식 근대화는 1884년 갑신의회 개혁에서부터 시작한다. 중요한 의례에 착용하는 제복과 조복은 기존대로 두고 일상복의 넓은 소매를 좁혀서 활동성과 경제성을 고려하는 내용이었다. 1894년 갑오경장, 1895년 을미 복장식, 단발령에 이어 외국복식을 채용해도 무방하다고 공포하여 복식의 간소화와 서구식 복식의 채용이 공인되었다. 1897년 대한제국의 개국으로 복제는 황제국의 위상에 맞는 복제로 개편된다. 국가나 황실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태극기, 무궁화, 오얏꽃 등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많은 문서와 기물에 이들 무늬가 사용되었고 복식에도 사용되었다. 대한제국의 서구식 복제는 근대화에 앞선 일본을 통해서 유입되었다. 복식의 종류, 착용신분, 착용상황, 복식 종류별 구성요소 등에서는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따랐다. 다만 복식에 새긴 문양을 대한제국에 맞게 함으로써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한제국 복식의 근대화

간재 전우

총정공 민영환

유길준



대한제국 육군부장 제복을 입은 의친왕



간재 전우

良齋 田愚

간재 전우 1841년 - 1922년

조선 말기의 성리학자로 어려서부터 학문이 뛰어나서 서울, 충청도 지역의 선생님을 찾아다니며 공부하였다. 간재 전우는 율곡 이이와 송시열의 사상을 계승하는데 힘썼으며 후에는 그 자신만의 성리학 이론을 정립하였다.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1908년부터 학문을 일으켜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왕등도, 계화도 등 섬에 정착하여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고 저서를 남겼다. 나라가 망하여도 도학군자만을 자부하고 무가치하게 목숨을 버리지 말고 도학의 중흥으로 나라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제의 탄압에 대하여 조선 사람으로 전혀 일본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고 무호적자로 살며 제자 양성과 저술에만 힘썼다. 저서로는 간재집 60책, 간재사고 30책, 추담별집 2책 등이 있다. 그의 후손인 전봉희 교수(서울대학교)가 도포, 방령깃 포, 쓰개, 복건, 지팡이 등 총 22점의 유물을 2017년 3월 경운박물관에 기증하였다.



간재 전우(국립현대미술관 소장)



59 · 60 장보관 章甫冠

Scholar's Hat

대한제국

둘레 52cm 높이 24cm

둘레 54cm 높이 20.5cm

유학자들이 사용하던 관모의 하나이다.

간재 전주 영정의 장보관은 검정색 삼베로 만들었다.

치포관과 같은 내모(內帽)에 뒤에서 옆까지 외모(外帽)가 둘러진 형태이다.

왼쪽은 고운 삼베로 만든 장보관, 오른쪽은 정확한 명칭은 알 수 없는 변형된 쓰개의 일종이다.



61 치포관 縑布冠

Black Headdress

대한제국

둘레 54cm 높이 23.5cm

끈길이 91cm 끈너비 1.5cm

상투 위에 썼던 관으로 심의와 복건과 함께 착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검은 삼베로 오랑관의 양쪽에 해당하는 세로 무늬를 넣어 짜고

양 옆에 끈을 달아 묶게 하였다.



62 정자관 程子冠

Nobleman's Hat
 대한제국
 둘레 56cm 높이 18.5cm
 조선시대 사대부가 평상시 집안에서
 착용하던 관으로 말총을 엮어 만들었다.



63 망건 網巾

Headband
 대한제국
 가로 31.5cm 세로 7cm
 훼손된 망건의 일부이다.
 망건은 상투를 틀 때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게
 이마에 두르는 것이다.



64 정자관 程子冠

Nobleman's Hat

대한제국

둘레 54cm 높이 25cm

모시에 검은 선을 둘러 만든 특이한 형태의 변형된

3층 정자관으로 보인다.

말총보다는 삼베나 모시를 사용하여 관을 만든

마지막 성리학자의 멋이 느껴진다.



65 쓰개 首飾

Headdress

대한제국

둘레 56.5cm 높이 16.2cm

감투의 형태를 변형하여 말총과 가늘게 꼬인
땃개비로 만들었다.

66 · 67 쓰개 首飾

Headdress

대한제국

둘레 54cm 높이 17cm

둘레 54cm 높이 18.5cm

반타원 모양의 모시 두장을 마주 박고
끈을 달아 간편하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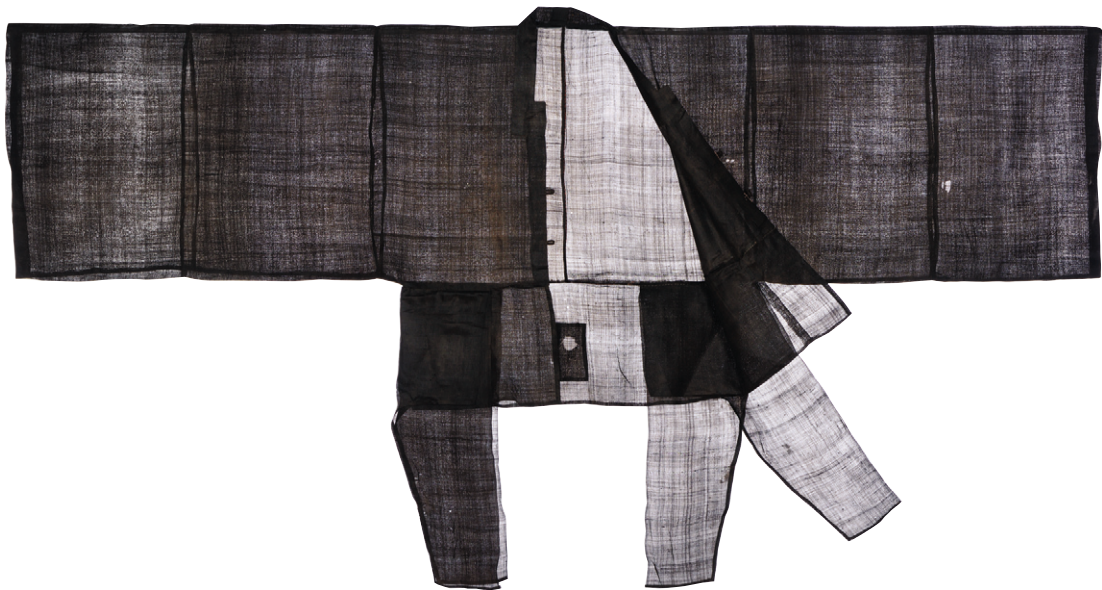


68 · 69 갓 黒笠

Black Hat
대한제국
지름 28cm 높이 14cm
지름 27cm 높이 13.5cm

70 갓집

Hat Case
대한제국
가로 42cm 세로 42cm 높이 16.5cm
나무 위에 종이를 발라 만든 팔각 형태로
윗면에 선을 두르고 네모 안에 태극문양이 그려져 있다.





71 방령깃 포

Ceremonial Robe

대한제국

전체길이 101cm 전체너비 188.5cm

소매길이 44.5cm

명칭을 알수 없는 포의 형태로 방령깃에 대금형對襟形으로

매듭단추와 고리로 여미게 되어있고 소매는 넓고 일자이다.

아랫부분은 상복의 제도를 적용하여 옷 전체가 제복으로 느껴진다.



72 지팡이 杖

Walking Stick
대한제국
길이 163cm
감태나무로 만든 연수延壽 지팡이로
옹이가 아름답다.

73 포백대 布帛帶

Fabric Belt
대한제국
길이 345cm 너비 4cm
용도를 알 수 없는 명주끈으로,
포를 입고 묶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74 · 75 하상 下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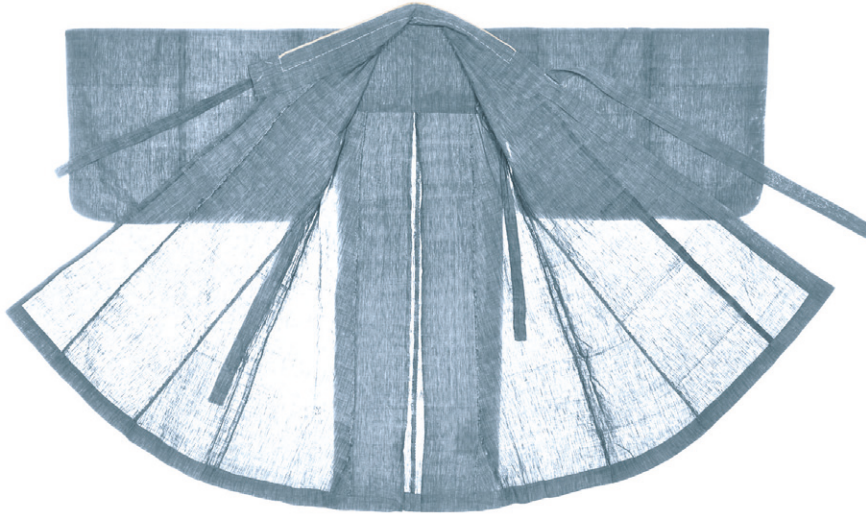
Ceremonial Skirt for Man

대한제국

길이 79cm 너비 112.5cm 끈 길이 46cm

길이 77.5cm 너비 100.5cm 끈 길이 42cm

두 개의 하상은 상복의 전삼후사前三後四의 제도에 포함되지만
전삼과 후삼이 하나의 허리에 달려있는 면복이나 상복과는 대조된다.
흑갈색으로 염색한 명주를 다듬어질하여 광택이 난다.



76 복건 幅巾

Hood
 대한제국
 길이 64.5cm 너비 23.5cm
 끈 길이 66cm
 복건은 청색과 소색 면사로 짜여진
 평직물로 만들어졌다.

77 세조대 細條帶

Woven Belt
 대한제국
 길이 155.5cm 너비 0.7cm
 도포에 착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세조대는
 삼색(홍색, 백색, 남색)의 면사로 소하게 짜여졌다.



78 도포 道袍

Nobleman's Robe

대한제국

길이 135cm 화장 93.5cm

도포는 선비들이 평상시 입던 겉옷으로 조선 중기 이후 많이 입혀졌으며 지금까지도 제례에 입혀지고 있다. 끝은 깃에 소매가 넓다.

뒷길 중심이 터 있고 그 위에 전삼 한 자락이 달려있다.

평상시에는 흰색 도포를 입고 좋은 일에는 청색 도포를 입었다.

간재의 도포는 청색과 소색 면사로 짠 평직물로 만들어졌다.

소매 안쪽에서 손수건으로 보여지는 모시적삼 조각이 발견되었다.



충정공 민영환 忠正公 閔泳換

충정공 민영환 1861년 - 1905년

성균관대사성, 도승지, 홍문관부제학, 호조판서, 병조판서, 형조판서, 한성부윤 등의 주요 벼슬을 하였다. 1895년에 주미전권대사로 임명되었지만 국모가 시해되는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부임하지 않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다시 1896년 4월 러시아황제대관식에 특명전권공사로 임명되어 상해, 동경, 뉴욕, 런던을 거쳐 모스크바에 여장을 풀고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10월에 귀국하였다. 다음 해 1월에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6개국 특명전권공사가 되어 영국여왕 즉위 60년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 때 고종의 친서를 러시아 황제에게 전달하고 각국 외교사절을 예방하였다. 귀국 후 독립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후원하였다. 내부대신, 학부대신을 지내며 날로 심해지는 일본의 내정간섭에 항거하여 좌천되었고 순국할 때까지 시종무관으로 있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을사 5적의 처형과 조약 파기를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으며 일제의 협박으로 왕명거역죄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미 국운이 기울어졌음을 깨닫고 국민의 각성을 위해 본가에서 자결하였다. 유서 세통을 황제, 국민, 외국사절에게 남기어 그의 우국충정의 마음이 전해지고 있다.



총정공 민영환(미국 의회도서관 제공)



양기훈의 민충정공 혈죽도(閔忠正公 血竹圖)

목판화, 1906

〈대한매일신보〉 1906년 7월 17일자에 실렸다.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광무 9년(1905) 11월 30일 오전 6시에 민영환이 45세의 나이로 자결하였는데, 그의 피묻은 옷과 칼은 협실에 보관하였다.

1906년 7월 4일에 문을 열어 보니 대나무 4줄기가 종이로 바른 마루 판자 틈 사이에서 자생하였다. 길이는 3-5척 정도였다고 한다.

문수산화공방 자료제공

79 충정공 구군복 忠正公 具軍服

Min Youngwan's Robe with Different Color Sleeves

대한제국

화장 79cm 뒷폭 43cm 뒷길이 119cm

조선시대 구군복은 전립戰笠, 동다리, 전복戰服, 전대戰帶, 목화木靴를 착용하고

등채籐鞭을 들거나 검劍을 패용하여 일습을 갖춘 상태를 말한다.

동다리에 전복이 한 벌로 구성된 홑옷으로 조선 말기에 약식으로 제작된 개량형 구군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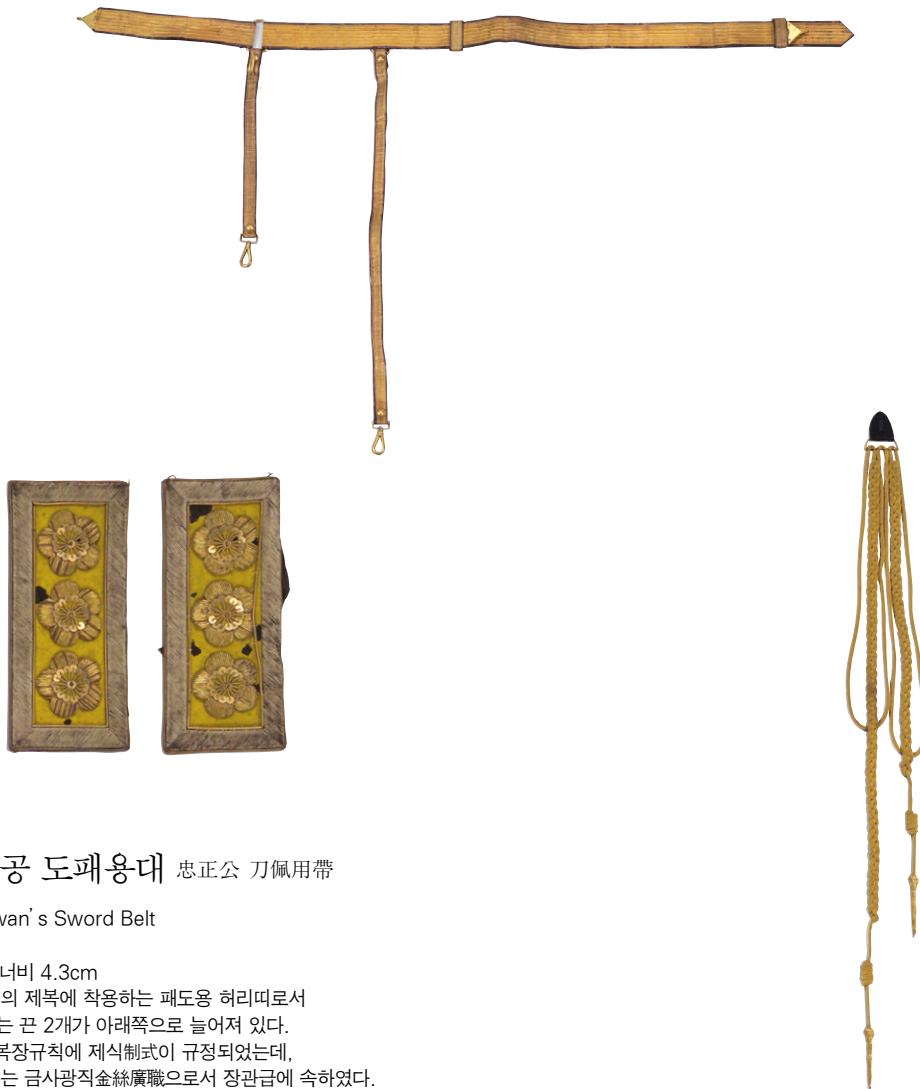
길은 검은색, 소매는 주황색과 다홍색 은조사로 만들었다. 소매와 길 모두 홀이며

옆트임과 뒤트임이 있다. 깃은 없으며 앞 중심선에 매듭단추 3개가 달려 있다.

뒤트임과 옆트임, 앞 중심선, 목둘레선에 따로 단을 대었다. 겨드랑이에는 바대가 있다.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80 충정공 도패용대 忠正公 刀佩用帶

Min Youngwan's Sword Belt

대한제국

길이 110cm 너비 4.3cm

대한제국 육군의 제복에 착용하는 패도용 허리띠로서 칼을 달 수 있는 끈 2개가 아래쪽으로 늘어져 있다.

1897년 육군복장규칙에 제식制式이 규정되었는데, 민영환의 도대는 금사광직金絲廣職으로서 장관급에 속하였다.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81 충정공 견장 忠正公 肩章

Min Youngwan's Epaulet

대한제국

가로 12.4cm 세로 5.6cm

제복의 어깨 위에 부착하여 계급을 나타내는 표장이다.

형태가 장방형인 것으로 보아 소례견장小禮肩章임을 알 수 있다.

노란색 융絨 바닥에 금속사를 사선으로 수직하였으며, 중앙에 오얏꽃 문양 세 개를 차례로 두었다.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82 충정공 식서 忠正公 飾緒

Min Youngwan's Metallic Decorative Code

대한제국

길이 89cm

대한제국 육군 제복의 장식품으로 장관급 장교와 참모장교가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패용하였다.

소재는 금사선제金絲線製 혹은 백색의 견사선제絹絲線製 등이 사용되었다. 식서의 매듭줄 끝 두 곳에는 무궁화와 무궁화잎이 양각된 금구金具를 부착하였다.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83 충정공 정장 忠正公 正裝

Min Youngwan' s Formal Suit

대한제국

품 37cm 소매길이 53cm 뒷길이 70cm

1900년 개정령에 의한 부장副將 평상의平常衣에 해당하는

군복 상의이다. 길이는 착용시 엉덩이를 덮을 정도이며,

무궁화 무늬가 새겨져 있는 7개의 단추가 달려 있다. 깃의 앞면 좌, 우측의 의령장衣領章에 별 3개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장관급임을 알 수 있다.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유길준
俞吉濬

유길준 1856년 - 1914년

어려서는 집에서 한학을 공부하다가 1870년 박규수 문하에서 김옥균, 박영효 등 개화청년들과 실학사상을 배우고 서적을 통하여 해외문물을 습득하였다. 1881년 어윤중의 수행원으로 신사유람단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일본유학생이 되었다. 임오군란이 일어난 후 1883년 귀국하여 한성순보 발간사업의 실무책임을 맡았다. 민씨척족세력의 견제로 신문발간사업이 중단되고 보빙사 민영익의 수행원으로 도미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유학생이 되었다. 갑신정변이 실패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학업을 중단하고 유럽 각국을 순방한 후 귀국했다. 갑신정변의 주모자인 김옥균, 박영효 등과 친분이 있다하여 연금생활을 하게 되고 그동안 『서유견문』을 집필하여 1895년에 출간하였다. 국한문혼용체로 서술하여 서양의 근대문명을 한국에 소개하는 한편 자주적인 실상개혁을 주장하였다. 1894년 친일내각에 참여하여 내각총서, 내무협관 등의 요직을 지내며 갑오경장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1895년 을미사변 후에 내부대신이 되어 단발령을 강행하여 유럽과 국민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1896년 2월 아관파천 후에 일본으로 가서 일심회와 함께 쿠데타를 기도했으나 실패했다. 1907년 고종이 폐위된 후 귀국하여 흥사단부단장을 역임하고 계산학교 노동야학회 등을 설립하여 국민계몽에 주력하고, 국민경제회 호남철도회사 등을 조직하여 민족산업의 발전에 힘을 쏟았다. 1909년엔 국어문법서인 『대한문진』을 간행하였다. 일진회의 한일합방론에 정면으로 반대하였고 일제가 수여한 남작의 작위도 거부하였다.



유길준(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84 유길준 단령 兪吉濬 團領

You Giljun's Uniform with Round Neck

대한제국

확장 73cm 품 47cm 뒷길이 120cm

유길준이 착용하였던 소례복 단령이다.

기존의 단령과 달리 옷소매가 좁고 고름 대신 단추로 여며 간편하고 실용적으로 되었다.

이를 통해 양복의 국가적 보급화에 앞장 섰던 유길준의 생각이 복식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등록문화재 606호





85 조끼

Vest
 대한제국
 품 39cm 뒷길이 42cm 앞길이 53.5cm
 걸감은 검은색 모직, 안감은 소색 능견이다.
 금장 단추가 5개 달려 있다.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86 허리띠 劍帶

Sword Belt
 대한제국
 가로 10cm 세로 15cm 둘레 88.5cm(버클 제외)
 (전체) 가로 89cm 세로 15.5cm(버클 포함)
 의장용 검을 꽂는 검대劍帶이다. 검대의 칼 끝 부분과 손잡이에 가까운 부분에 무궁화와 잎 등으로
 금장 장식이 덧대어져 있다. 검을 넣는 몸체 부분은 짙은 갈색의 모직, 요대는 검은색 편직과
 흰색 레이스, 허리부분에 연결된 어깨걸이는 흰색 편직으로 만들었다. 몸체 부분은 가장자리와
 검 투입구 주변을 금색선으로 한줄 두르고 안쪽에 완형의 무궁화 한송이와 줄기, 잎을 지수하였다.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87 고관예복-상의 高官禮服-上衣

High Official's Uniform - Top

대한제국

품 39cm 소매길이 57cm 뒷길이 84cm

주임관奏任官 대례복大禮服이다. 검은색 모직으로 지은 연미복 형태이다.

목둘레, 앞여밈과 도려에 연이어 금선을 돌렸으며 상의의 전면과 후면에 장식된 무궁화와 잎, 줄기는 유럽형 금사 코일자수로 하였다.

앞면은 좌측 자락 금선 위치에 9개의 금장 단추를 달고 안쪽으로 고리를 달은 대금형이다. 앞 여밈선을 중심으로 반쪽짜리 무궁화를 좌우 2개 자수하였다.

뒷면은 상부와 허리 중앙에 잎과 줄기가 자수되어 있다.

뒷면 허리 이하의 트임 부분 겹자락에 금선을 돌렸으며 금선의 시작과 일단 좌우에 각 2개씩 금장 단추를 달았다. 깃은 스탠딩 칼라이며 연청색 모직이다.

허리 양 옆선에서 약간 뒤쪽으로 치우쳐 주머니 뚜껑에 줄기 잎을 앞면과 같은 기법으로 자수하였다. 소매는 겉은 아청색 모직, 안은 백색 공단이며 겉에 무궁화가 2개 자수되어 있다.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88 고관예복-하의 高官禮服-下衣

High Official's Uniform - Bottoms

대한제국

허리둘레 67cm 바지길이 93cm

검은색 모직으로 되어 있다. 앞은 여러개의 단추로 여미게 되어 있고

허리둘레에 7개의 단추가 달려 있다. 뒷중심은 V자 형태로 파여져 있고

뒷면 허리선 바로 아래 위치에 벨트장식이 있고

옆선은 2조의 요철문 금직띠로 장식하였다.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대한제국 황제 12장 면복(冕服) 고증

최연우

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교수 · 전통복식연구소 소장

I. 서론

‘면복(冕服)’은 한(漢)의 정현(鄭玄)이 『주례(周禮)』 「대행인(大行人)」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면관과 그에 따르는 복식 일습(一襲)(冕服, 著冕所服之衣也)’을 의미한다. 구성품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나 면관(冕冠), 상의(上衣), 하상(下裳), 중단(中單), 혁대(革帶), 대대(大帶), 폐슬(蔽膝), 패옥(佩玉), 수(綬), 방심곡령(方心曲領), 버선(襪), 석(寫), 규(圭) 등이다. 면관에는 류(旒)가 드리워져 있고, 상의와 하상에는 일(日), 월(月), 성신(星辰), 산(山), 용(龍), 화충(華蟲), 종(宗彝), 조(藻), 화(火), 분미(粉米), 보(黼), 불(黻) 등 총 12종류의 무늬가 표현된다. 우리나라 면복은 이 류와 무늬의 수에 따라 12류 면관에 12장복, 9류 면관에 9장복, 8류 면관에 7장복, 7류 면관에 5장복으로 구분된다. 이 중 12류 면관에 12장복(이하 ‘12장 면복’이라 함)은 12줄의 류를 드리우고 총 12종류의 무늬를 쓴다. 12장 면복은 본래 황제만 입을 수 있는 예복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공민왕이 잠깐 착용했었고, 황제 신분으로서 정식으로 착용하기는 대한제국(1897~1910년)에 들어서이다.¹⁾

1897년 10월 12일(음력 9월 17일)의 대한제국 개국(開國)은 한국복식사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가 된다. 중국을 황제국으로 인정하면서 제후국의 복제(服制)를 적용했던 조선과 달리 명실상부한 황제국 복제를 규정, 시행하기 때문이다.²⁾ 황제국 복제의 정점에는 황제가 착용하는 12장 면복이 있다. 그런데 이 시기 12장 면복은 순종이 착용하고 있는 흑백사진 <그림 1>만 남아 있어서 형태 뿐만 아니라 색과 무늬에 천지(天地), 음양(陰陽), 삼재(三才), 오행(五行) 등의 전통 사상이 함유된 면복을 고증하여 복원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12장 면복은 현재 종묘제례처럼 세계무형유산(世界無形遺産: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으로 지정된 의례에도 착용되고 있다. 의례에서 장엄함과 성대함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핵심적인 장치는 복식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전통 시대에 군주(君主)는 제례(祭禮), 혼례(婚禮), 책례(冊禮) 등 가장 중요한 의례에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면복을 입었고, 그 전통은 현재 세계무형유산으로 이어지



<그림 1> 12章 冕服 착용 純宗 李覺鍾(1926년), 『純宗實紀』

1) 한국 면복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최연우, 『면복-군주의 덕목을 옷으로 표현하다』(문학동네, 2015) 참조.

2) 대한제국의 개국으로 조선과 달라진 복식의 변화에 관해서는 ①최규순, 「대한제국 황실의 복식-황제와 황후의 복식 어떻게 변했나」(『대한제국-잊혀진 100년 전의 황제국』, 국립고궁박물관, 2010, 259~280쪽), ②최규순, 「대한제국 황실 사진에 나타난 옷」(『대한제국 황실의 초상:1880~1989』, 가현문화재단·한미사진미술관, 2012, 372~397쪽), ③최규순, 「대한제국시대 관원의 예복」(『대한제국 남성예복-새로운물결, 주체적 수용』, 경운박물관, 2012, 120~146쪽) 참조.

며 전 세계인에게 보여지고 있다. 12장 면복을 착용하고 행하는 전통의례는 이제 우리만의 전통에서 벗어나 세계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 의미를 잘 살린 복식을 면밀히 고증 및 재현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 전통문화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종묘제례 등의 전통의례에서 의식의 주재자는 12장 면복을 착용한다. 이는 곧 현대에 들어 지속되거나 복원되는 전통의례의 복식이 대한제국의 복제를 근간으로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글은 문헌, 사진, 유물 등 사료를 종합하여 대한제국 황제 12장 면복을 고증하여 도상으로 복원하였다. 고증 및 복원 대상은 구성요소 총 13품목과 이들 구성요소에 표현하는 12종류의 무늬이다. 고증자료 선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종묘제례 등에서 착용하는 12장 면복이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이은 것이므로 이 시기 사료를 근본으로 한다. 둘째, 대한제국 시대 자료를 통해 고증할 수 없는 부분은 조선과 명(明)의 자료를 참고한다. 셋째, 대한제국의 전례서(典禮書)인 『대한예전(大韓禮典)』에 문자로 수록된 ‘제도’나 그에 부수된 도식(圖式)이 유물이나 사진 등의 기타 자료와 상호 모순되는 경우, 유물이나 사진을 우선으로 한다. 이유는 『대한예전』의 면복에 관한 제도나 도식이 명의 『대명회전(大明會典)』과 『삼재도회(三才圖會)』를 기계적으로 따르고 당시 실제 시행된 상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이다.

Ⅱ. 12장 면복 고증 기초자료

동아시아 전통국가는 개국 후 통치 세력의 정치 이념에 근거해 국가를 운영할 각종 제도를 규정한다. 여기에는 군주가 주재자가 되는 국가 의례가 포함되고, 국가 의례는 전례서에서 규범화된다. 조선에서는 국가 의례를 오례(五禮)로 나눈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가 1474년(성종5)에 완성된다. 대한제국 역시 개국 후 황제국의 전례서인 『대한예전』을 편찬한다. 『대한예전』에서는 황제의 12장 면복을 문자로 된 제도와 도식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대한예전』은 가장 중요한 고증 자료이다.

그런데 『대한예전』 권4 ‘제복도설(祭服圖說)’에서는 그 복제(服制)의 준거에 관해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무릇 천지, 종묘, 사직, 선농에 제사할 때 및 정조, 동지, 성절에 곤면복(袞冕服)을 입는다. 광무 원년(1897년)에 그 제도를 고쳐 정하였으니, 『대명회전』에 실린 제도를 취한 것이 많다. 이하 가례(嘉禮)의 관복(冠服)도 그러하다 (凡祭天地·宗廟·社稷·先農及正朝·冬至·聖節服袞冕. 光武元年改定其制, 取『大明會典』所載制度者爲多, 以下嘉禮冠服亦如之.)”

대한제국의 복제가 기본적으로 『대명회전』을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제국 12장 면복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대한예전』을 기초로 하되 『대명회전』을 함께 살펴야 한다. 『대명회전』은 1511년(정덕4)에 간행된 정덕본(正德本)과 1587년(만력15)에 간행된 만력본(萬曆本)이 있다. 면복 도식은 만력

본에 나타나고, 이는 “가정팔년 정(嘉靖八年定)” 제도에 부합한다.

한편, 『대한예전』에서는 『대명회전』의 복제를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했고, 실제 문자로 규정된 제도를 보면 『대명회전』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轉載)한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제도 옆에 부수된 도식은 『대명회전』과 『삼재도회』를 함께 취하고 있다. 『삼재도회』는 「의복2권」 ‘국조관복(國朝冠服)’에서 명대의 복제를 도설(圖說)로 제시하였는데, 그 도설은 『대명집례』를 따랐기 때문에 제도와 도식에 있어 『대명회전』과 차이가 난다. 즉 『대명회전』과 『삼재도회』의 도식은 서로 다른데, 『대한예전』 도식에서 이를 섞어서 취한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한예전』은 문자로 된 제도와 도식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³⁾ 따라서 대한제국의 면복 고증에는 『대명회전』과 동시에 『삼재도회』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12장 면복 고증을 위해 참조할 또 하나의 명대 자료는 『명궁관복의장도(明宮冠服儀仗圖)』이다. 이 자료는 기존에 『중동궁관복(中東宮冠服)』(북경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흑백도판본)으로 소개되었는데, 최근 중국에서 북경시문물국에 소장된 채색도판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명칭을 수정하였다. 수록된 자료 중 면복은 홍무연간의 도식과 영락연간의 도식이 있다. 이 중 영락연간의 면복이 조선에 영향을 준 제도이다. 면복의 상의에 8장, 하상에 4장의 무늬가 표현되어 있는데(그림 2), 『대명회전』에서 “영락삼년 정(永樂三年定)”이라 명시한 제도에 부합한다. 『대명회전』의 제도 중 “홍무십육년 정(洪武十六年定)”, “홍무이십육년 정(洪武二十六年定)”, “가정팔년 정(嘉靖八年定)”에서는 상의에 6장, 하상에 6장을 쓰고, “영락삼년 정(永樂三年定)”에서만 상의 8장, 하상 4장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즉 『명궁관복의장도』는 제작연대가 불분명하지만, 면복 도식은 영락 3년인 1405년 즈음의 제도를 근간으로 한다. 이는 『대명회전』 만력본 도식보다 앞선 것이다.⁴⁾

또 대한제국은 황제국 복제를 규정하기 위해 명의 제도를 참고하지만, 복식의 세부형태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써 왔던 조선의 제도를 잇는 면이 있으므로 이 역시 참조해야 한다. 따라서 <그림 3>에 『국조오례의』의 면복 도식을 함께 정리하였다.

이 외, <그림 1>의 순종 사진, <그림 4>의 효명세자 예진(1826년 그림), <그림 5>의 1918년과 1922년에 촬영한 영친왕 사진, <그림 6>의 구장복 유물 2벌(상의와 중단 각 2점씩 총4점), <그림 7>의 적석(赤舄) 유물 등이 기초자료가 된다. 이외 조선시대 각종 의례에 관해 기록한 『의례(儀軌)』의 내용 및 도식, 『상방정례(尙方定例)』 등을 참조할 수 있다.

한편 명대 자료 중 제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림과 유물에서 보이는 ‘곤복(袞服)’이 있다. 명 후기의 황제는 <그림 8>과 같이 단령(團領) 형태에 12장문이 있는 곤복(袞服)을 착용하였다. 현재 황제

3) 『대한예전』의 복제를 『대명회전』 및 『삼재도회』와 비교해 분석한 내용은 최규순, 「『대한예전』 복식제도 연구」 『아세아연구』53-1,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2010, 183~218쪽 참조.

4) 이 자료는 잔권(殘卷) 형태로 되어있어 2015년 책을 출판할 당시 편찬자들이 『대명집례(大明集禮)』와 『대명회전』을 참조하여 순서를 배치하였다. 복식은 「관복권(冠服卷)」으로 분류하고, 그 안에서 다시 ‘명홍무년관복도(明洪武年冠服圖)’와 ‘명영락년관복도(明永樂年冠服圖)’로 구분하였다. 陳曉蘇, 『明宮冠服儀仗圖』, 北京燕山出版社,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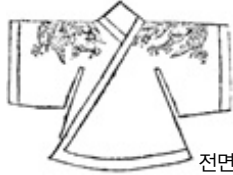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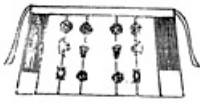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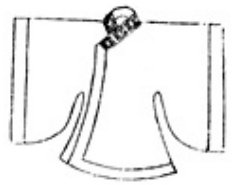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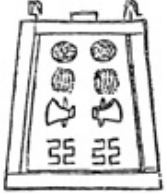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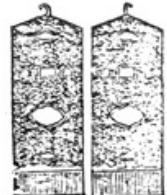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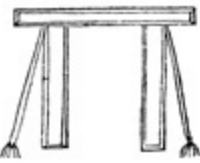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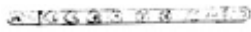
총 9인(영종, 헌종, 효종, 무종, 세종, 목종, 신종, 광종, 희종)의 초상화가 남아있고, 신종 황제의 곤복이 정릉(定陵)에서 출토되었다(그림 9). 이들 초상화와 유물에서 명대 12장문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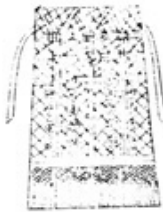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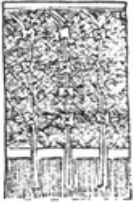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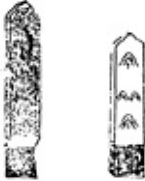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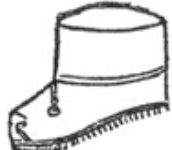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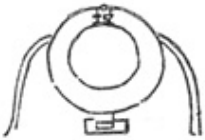
이상의 자료가 대한제국 황제 12장 면복 구성품과 무늬의 형태를 고증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고, 이외 조선 및 대한제국의 기타 자료들을 참조할 수 있다.



〈그림 2〉 명 영락연간의 황제 12장 면복
『明宮冠服儀仗圖』, 北京市文物局 소장

면복 구성	황제 면복			왕 면복
	『대한예전』 (1898년 추정)	『대명회전』 (1587년 간행, 면복 도식은 1529년 즈음 규정되어 명말까지 적용)	『삼재도회』 (1607년)	『국조오례의』 (1474년)
	* 『대한예전』에 수용			
면관				

상의	 <p>전면</p>  <p>후면</p>	 <p>전면</p>  <p>후면</p>		 <p>전면</p>  <p>후면</p>
하상				
중단				
폐슬				
패옥				
대대				
혁대				없음

수				
규			-	
버선				
석				
방심 곡령	-	-	-	

<그림 3> 12장 면복 고증을 위한 참고 도식



<그림 4> 효명세자 예진 중의 면복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그림 5> 면복 착용 영친왕
좌: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1918년)
우: 일본 신문(1922년)



갑사 구장복



은조사 구장복

<그림 6> 구장복 유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7〉 대한제국시대 황제 적석
엘칸토박물관 소장



〈그림 8〉 '袞服' 착용 명 세종 초상화
대만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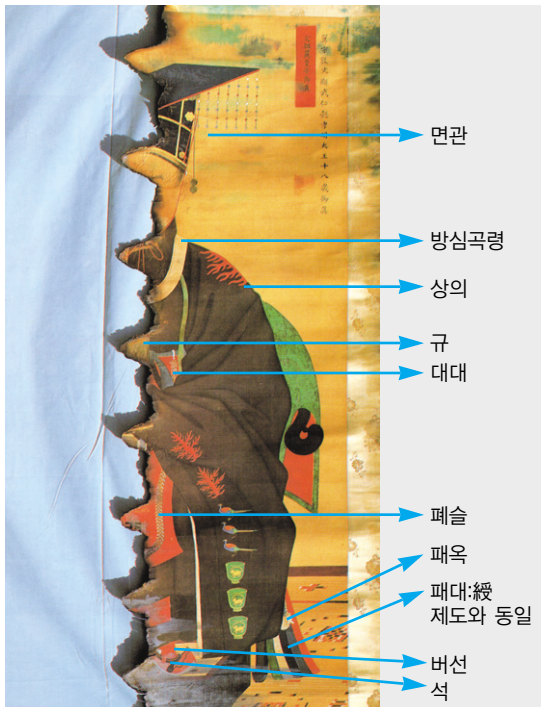
유물

복제

〈그림 9〉 정릉 출토 '袞服'
북경 십삼릉박물관 소장

Ⅲ. 구성요소의 형태 고증

본 장에서는 면복의 구성품(그림 10)인 면관, 상의, 하상, 중단, 혁대, 대대, 수(綬), 폐슬, 패옥, 버선, 석, 방심곡령, 규 등의 형태를 고증한다.



〈그림 10〉 면복 구성요소
(하상과 중단은 속에 있어 보이지 않고 혁대는 차지 않음)

1. 면관(冕冠)

1) 무(武), 연(紵), 형(衡)[梁]

'면관'이 '면(冕)'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전체적인 모양이 앞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기울다'라는 '면(俛)'자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이다.⁵⁾ 면관이 앞으로 기울어진 모양이 된 것은 무(武) 때문이다. 무는 머리통을 감싸는 부분으로, 둥그렇게 통 모양으로 만드는데 앞은 낮고 뒤는 1촌 정도 높다. 이 위에 면관을 얹으면 옆에서 봤을 때 관모가 앞으로 기울어진 모양이 된다. 따라서 무는 앞을 낮고 뒤를 약간 높게 해야 한다. 무는 대나무를 가늘게 쪼갠 대나무줄(竹絲)을 교차시켜 망(網)의

5) 『釋名』「釋首飾」; 『周禮』「弁師」賈公彥疏; 『儀禮』「士冠禮」賈公彥疏.

모양으로 엮어서 머리통을 감쌀 수 있도록 둥그렇게 틀을 만들고 검은 칠(漆)을 한다.

무 위에는 '연(纒)'이라는 면판을 엮어 정수리를 덮는다. 오동나무를 재료로 하고, 전원후방(前圓後方) 형태로 하여 천원지방(天圓地方)을 형상화한다. 크기는 『대한예전』에서 길이 2척4촌에 너비 2척2촌이라 하였다.⁶⁾ 이 규정은 『대명회전』의 제도를 그대로 전제한 것인데, 『명사(明史)』 「여복지(輿服志)」에는 '길이 2척4촌에 너비 1척2촌'으로 되어 있다. 역대 중국 제도를 보면, 연은 일반적으로 길이가 너비의 두 배 정도이다. 또 『국조오례의』에도 '길이 1척6촌, 너비 8촌'으로 되어 있다. 『대명회전』의 내용이 오기(誤記)이고, 이 오기가 『대한예전』에 그대로 수록된 것이다. 따라서 『명사』에 근거해 연은 길이 2척4촌에 너비는 그 1/2인 1척2촌으로 해야 한다. 순종황제 면판의 너비도 양쪽 귀와 나란한 정도여서 이러한 비례로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연 제작시 사용한 자는 조례기척(造禮器尺)이고, 1척은 약 28.6cm이다.⁷⁾

무와 연은 직물로 덮는다. 재료는 『대한예전』에 사(紗)로 되어있는데, 조선시대에는 겉을 모단(冒緞) 안을 광적(廣的, 혹은 廣織)으로 하거나 겉과 안 모두 증(繒)을 썼다. 그 색은 무의 외면(外面)과 면판의 윗부분을 현색(玄色)으로 하고, 무의 내면(內面)과 면판의 아랫부분을 훈색 혹은 주색(朱色)으로 한다. 현색은 붉은색을 조금 지닌 검은색으로, 천(天)을 상징한다. 주색은 붉은색인데, 고대의 예에서는 면판에 주색 외에 훈색(纁色)을 쓴다고도 하였다.⁸⁾ 훈색 역시 붉은색으로, 한나라의 정현(鄭玄)은 붉은색 염액에 3번 담그면 훈색이라 하였고, 4번 담근 것이 주색이 아닐까 추정하였다.⁹⁾ 고대인들은 훈색은 오행(五行)에서 남방(南方)에 배속되는 적색과 지(地)를 상징하는 황색(黃色)의 간색(間色)으로, 지(地)는 정해진 위치가 없어 남방에 의탁하기 때문에 적색과 황색을 섞은 간색인 훈색이 지(地)를 상징한다고 보았다.¹⁰⁾ 즉 면판에서 현색은 천(天), 주색이나 훈색은 지(地)를 상징하기 위한 장치이다.

면판의 무에는 비녀를 꽂는다. 따라서 무의 양 옆에 비녀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을 뚫는다. 구멍은 미어지지 않도록 '뉴(紐)'라는 테두리 장식을 한다. 뉴는 『대한예전』에는 규정이 없지만 『국조오례의』에서 무에 "금(金)으로 장식한다"라고 하였고, 효명세자 예진에서도 금 장식이 확인되며, 비록 흑백이긴 하나 영친왕 사진에서도 햇빛에 반사되는 것을 통해 금이 사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무의 뉴는 금으로 장식한다. 다만 『상방정례』에서 장식을 십품은(十品銀)에 도금을 한다고 했으므로 이를 따라도 무방하다.

또 전례서의 도식과 순종황제 사진에는 이마 부위에 직사각형 모양의 장식이 있고 무 전체에 가로나 세로로 가느다란 선이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자료들에 근거해 모두 금을 재료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大韓禮典』卷4 '祭服圖說': "冕制以圓匡, 烏紗冒之. 冠上有覆板, 長二尺四寸, 廣二尺二寸, 玄表朱裏, 前圓後方."

7) 국립고궁박물관, 『(왕의 면복 복원 복제 제작기술서 제1권) 면류관』, 2011, 54쪽.

8) 『周禮』 「弁師」.

9) 『儀禮』 「士冠禮」 鄭玄注.

10) 『周禮』 「司服」 賈公彥疏

이렇게 만들어진 무와 연은 형(衡) 즉 양(梁)을 통해 결합된다. 형은 옥(玉)으로 만든다. 2개가 한 쌍을 이루는데, 면판 아래에 붙이는 것은 가운데로 갈수록 배가 살짝 부르게 하고, 무의 위쪽의 양쪽 홈에 끼우는 것은 정육면체로 만들어 가운데에 길게 홈을 파서 면판 아래에 붙인 볼록한 옥이 끼워지게 한다. 길이는 면판 아래에 가로로 대는 것이므로 면판의 너비와 같게 한다. 한편 무의 위쪽 양 옆에는 형을 끼울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홈을 모나게 판다. 무의 홈에 형을 끼우면 무와 연이 결합되어 면판의 기본 틀이 완성된다.

2) 비녀, 류(旒), 충이(充耳), 관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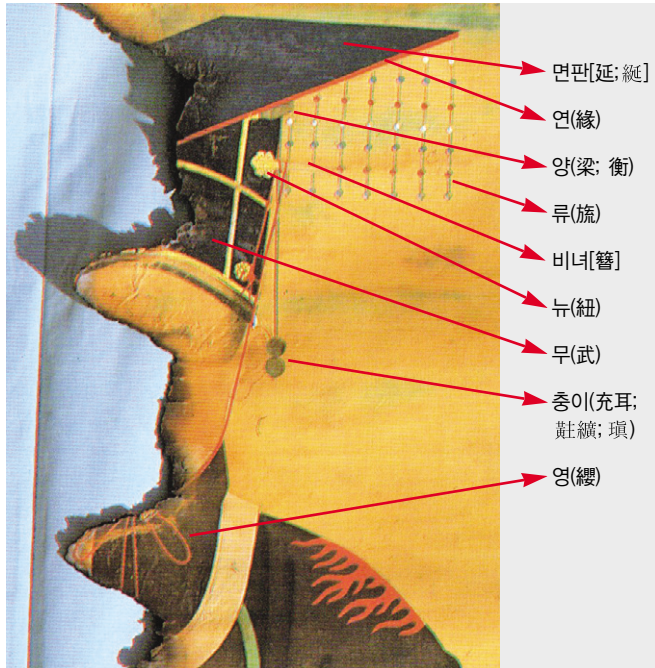
비녀는 ‘계(笄)’ 혹은 ‘잠도(簪導)’로 명명하고, 옥을 재료로 한다. 비녀머리는 네모나게 하고, 착장자의 오른쪽으로 가도록紐(紐)에 관통시킨다.

류(旒)는 ‘조(藻)’나 ‘소(纁)’라 부르는 끈과 이 끈에 꿰는 옥으로 구성된다. 황제는 앞뒤에 각 12류를 늘어뜨린다. 끈은 오채색의 실로 짜고, 끈마다 총 12개의 둥근 옥을 꿰는다. 옥의 색은 『대한예전』에 황-적-청-백-흑-홍-녹의 7채(彩)를 쓰도록 규정하였다. 『국조오례의』에서 왕세자 옥의 순서는 “먼저 주색, 다음으로 백색, 다음으로 창색(蒼色)”이라 하였는데, 효명세자 면판의 옥이 위에서부터 주-백-창의 순서로 반복되어, 기록에 먼저 언급된 색이 위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황제의 12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황-적-청-백-흑-홍-녹의 7채를 쓰고 다시 반복해서 황-적-청-백-흑을 써서 총 12옥을 갖췄을 것으로 추정된다.

옥과 옥 사이의 간격은 『대한예전』에 위에서부터 3개가 연속되고, 다시 일정한 간격을 떼고 나서 또 3개가 연속되고, 다시 일정한 간격을 떼고 나서 1개가 단독으로 있는, 총 7개의 옥으로 된 형태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삼재도회』의 도식을 가져온 것이고, 순종황제와 영친왕 사진, 효명세자 예진을 보면 면판 바로 아래에 1알을 붙여서 달고 그 아래로 하나하나의 옥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12옥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달고, 총길이는 순종황제 사진을 참고로 무의 높이보다 조금 길게 한다.

충이(充耳)는 형(衡)에 걸어 양쪽 귓가에 이르게 하는 장식이다. ‘귀를 막는다’는 단어의 의미대로, 형에 건 끈(紉)이 귓가에 이르러 그치게 하고 그 끝에 ‘전(璫)’이라 부르는 옥을 단다. 끈의 색은 『대한예전』에는 규정이 없으나 『국조오례의』에 검은색(玄)으로 되어 있고, 『대명회전』 “영락삼년 정” 제도 역시 같다. 또 끝에 다는 옥은 고대에는 누런 숨(黠纁)으로 했으나 후대로 오면서 옥으로 바뀐 것이다. 본래는 1개만 썼는데 송대 이후 2개를 썼고, 명과 조선에서도 2개를 쓴다. 순종황제와 영친왕 사진, 효명세자 예진에서 모두 2개를 쓴 것이 확인된다. 『대한예전』에서도 “옥 2개를 매단다”라고 하였다. 그 색은 순종황제 흑백사진에서 매우 하얗게 나타나므로 흰색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명회전』 “영락삼년 정” 제도에서도 백옥(白玉)을 썼다. 충이의 길이는 무보다 약간 내려가게 한다.

고대 관모의 관끈은 꿩(紉)과 영(纓)이 있다. 꿩은 1가닥이고, 비녀가 있을 때 사용한다. 관모를 머리에 고정하는 역할을 비녀가 하므로, 꿩은 실질적인 역할은 없이 장식 역할만 한다. 이에 비해 영은



〈그림 11〉 면관 세부명칭

2가닥이고, 관모에 비녀가 없을 때 턱 아래에서 끈을 바짝 잡아매어 관모를 머리에 고정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본래 면관에는 비녀가 있기 때문에 꿩만 썼는데, 명대에 이르러 꿩과 영을 동시에 쓴다. 『국조오례의』에도 2종류의 관끈을 동시에 쓰는데, 하나는 자색 끈목(組) 2가닥을 쓰고 다른 하나는 주색 끈목 1가닥을 쓰는 것으로 되어있다. 전자는 영을 의미하고, 후자는 꿩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선후기 효명세자 예진에서는 2가닥의 붉은색 끈만 턱 아래에서 바짝 잡아맨 형태가 나타나고, 순종황제와 영친왕 사진에서도 턱 아래에서 맨 끈 외에 다른 끈은 보이지 않는다. 『대한예진』의 규정 역시

“주색 영(纓)”만 쓴다. 따라서 대한제국 시대에는 주색 영 2가닥만 썼을 것으로 보인다. 영 2가닥은 무의 아랫부분 양쪽에 각각紐(紐)보다 작은 구멍을 2개씩 뚫어 여기에 꿴고, 비녀에 올려 걸었다가 다시 내려서 턱에서 잡아매는데, 풀기 쉽도록 2개의 고를 내어 묶는다.

2. 상의(上衣)

상의는 『대한예진』에 끈을 우임(右衽)으로 하고, 앞뒷길이 짧고, 길의 길이만큼 넓은 소매를 하고, 고름이 없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대한제국 시대 사진자료 및 구장복 유물을 보면 앞뒷길이 발목 조금 위까지 이를 정도로 길고, 고름이 있으며, 끈을 달아 우임으로 입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기본 형태는 이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깃부터 도련에 이르는 가장자리와 소매끝에는 길과 같은 색으로 가선을 두른다.

색은 면관의 겉과 같은 현색(玄色)으로 하고, 이 역시 천(天)과 양(陽)을 상징한다. 재료는 『대한예진』에 언급이 없고 조선시대에는 증(縐)이나 초(綃)를 쓴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구장복 유물 2점 중 1점은 갑사이고 1점은 은조사이므로, 이 유물과 같은 재료를 쓰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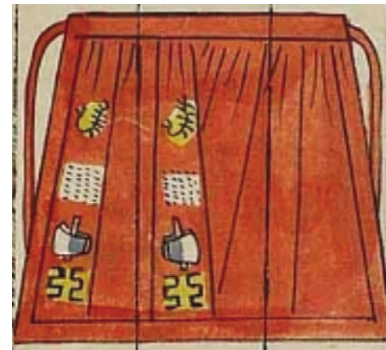
3. 하상(下裳)

하상은 『대한예진』의 제도에서는 전상 3폭, 후상 4폭으로 하되 전상과 후상을 붙여서 휘장(帷)과 같은 모양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부수된 도식도 전상과 후상의 구별 없이 하나의 휘장처럼 만들어서

허리말기와 끈을 붙인 형태이다. 이렇게 전상과 후상을 붙여서 휘장처럼 만든 하상은 명 가정 8년의 제도이다. 그런데 조선시대 전례서와 의궤의 제도나 도식을 보면 모두 <그림 12>와 같이 전상과 후상을 분리하되 하나의 허리말기로만 이어지게 하고 끈을 붙인다. 따라서 대한제국 시대에도 전상 3폭과 후상 4폭이 분리된 형태였을 가능성이 크다.

하상의 재료는 한국과 중국의 역대 면복제도에서 항상 상의와 같게 규정된다. 『국조오례의』에는 상의와 하상 모두 증(縵)이고, 조선후기 의궤에는 대부분 상의와 하상 모두 초(緇)로 되어있다. 따라서 구장복 유물 중 은조사 상의에는 같은 직물의 하상을 했을 것이고, 갑사 상의에는 같은 직물의 하상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복원시 은조사와 갑사 중 하나를 상의 재질로 선택하면 하상도 같은 감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몸판의 색은 『대한예전』에 혼색(纁色)으로 규정되고, 이는 지(地)와 음(陰)을 형상화한다. 하상의 양쪽 옆과 아랫자락에는 몸판과 같은 색으로 가선을 두른다. 고대부터 옆에 있는 가선은 '벽(縹)', 아랫자락의 가선은 '적(緋)'이라 했다. 허리말기는 조선후기 의궤 도식을 따라 몸판과 같은 색으로 한다.



<그림 12> 조선후기 왕 면복의 하상
『정조국장도감의궤』(1800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4. 중단(中單)

중단은 구장복 안에 끼워진 채 남아있는 유물을 참조할 수 있다. 끈은 것에 동정이 없고, 고름이 있으며, 소매가 넓고, 가선을 둘렀다.

재료는 문헌에 의하면 상의와 중단은 항상 같은 것을 쓴다. 『국조오례의』에는 증(縵), 의궤에는 초(緇)로 되어 있다. 유물은 갑사 구장복 안에 청색 순인 중단을 쓰고, 은조사 구장복 안에는 은조사 중단을 썼다. 색은 『대한예전』에 몸판을 소색(素色)으로 하고 가선을 청색으로 한다고 규정되었지만, 유물은 청색 몸판에 흑색 가선이다. 고름도 가선과 같은 흑색이다. 당시 실제 사용한 유물의 색을 따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5. 혁대(革帶)

혁대는 중국에서 본래 가죽띠 위에 바로 띠돈(帶錢, 鈔板)을 붙였었는데 후대로 오면서 가죽을 직물로 감싸고 그 위에 띠돈을 붙이는 것으로 바뀐다. 조선시대에는 혁대의 겉을 싸는 직물을 정(靛)이라 했다. 『대한예전』에서는 정에 관한 언급이 없다. 다만, 『국조속오례의보서례』에 의하면 조선시대 왕은 상복(常服)의 혁대에 대홍색을 쓰고 왕세자는 흑색, 왕세손은 청색을 썼다. 혁대의 정에 각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색을 쓴 것이다. 따라서 대한제국 황제는 황색 정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면복용 색은 조선, 대한제국, 명의 규정에 나타나지 않고, 『송사』 「여복지」의 송(宋) 소흥 4년(1134)

황제 면복 규정에서 붉은색인 비색(緋色)을 쓰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면복의 역대에는 붉은색 정으로 썼을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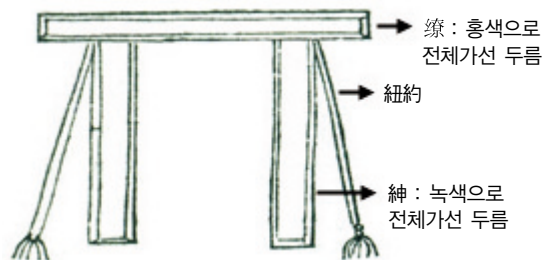
띠돈은 『대한예전』에서 옥으로 제시된다. 형태는 제도로 규정된 것과 도식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순종황제 사진과 영친왕의 옥대(玉帶)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조선말기 역대의 띠돈은 총 20개로 구성되는 것이 기본이다. 정면의 잠금장치인 삼태(三台) 3, 그 옆의 남두육성(南斗六星) 6, 좌보(左輔)와 우필(右弼) 2, 타미(撻尾) 2, 허리 뒤쪽의 북두칠성(北斗七星) 7개 등이다.¹¹⁾ <그림 1>의 순종 황제는 정면만 보이기는 하지만, 삼태 중 양쪽 옆 띠돈의 가장자리 각을 죽인 형태 등이 영친왕 옥대와 같다. 따라서 영친왕과 같은 형태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영친왕 옥대는 허리 뒤쪽의 띠돈이 5개만 있지만 순종은 황제의 신분이므로 북두칠성 7개를 모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띠돈은 영친왕 유물에 근거해 용을 투각한다.

6. 대대(大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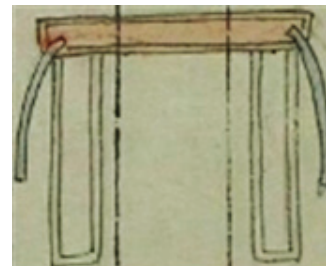
대대는 본래 직물로 만든 1가닥의 긴 끈을 허리에 둘러 앞에서 묶은 후 그 나머지를 아래로 드리운 것이었다.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허리에 두르는 부분과 아래로 드리우는 부분이 구분된 이중 구조로 변하고, 조선시대에도 이런 형태를 쓴다. 조선시대에 허리에 두르는 부분은 ‘요(縹)’, 아래로 늘어뜨린 부분은 ‘신(紳)’이라 했다.

『대한예전』의 제도에는 겉을 소색으로 하고 안을 주색(朱色)으로 하며, 위쪽 가선은 주색으로 하고 아래쪽 가선은 녹색(綠色)으로 두르도록 규정한다. 도식도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대한제국에서 실제 사용한 것과 다른 고대에 한 가닥의 긴 끈을 묶던 형태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예전』 도식보다는 조선 후기부터 대한제국 시대까지 실제 사용한 대대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대대는 영친왕비의 유물이 남아있으므로, 기본 형태는 이를 따른다. 색은 조선 후기와 대한제국의 의례 및 『상방정례』, 『대한예전』의 규정을 근거로 겉은 백색, 안은 홍색, 요(縹)의 가선은 홍색, 신(紳)의 가선은 녹색으로 한다.



<그림 13> 1713년 이전의 대대
『國朝五禮儀序例』卷1「吉禮」‘祭服圖說’



<그림 14> 1713년 이후의 대대
『영조국장도감의례』(1776년) 服玩用

11) 이은주, 「조선시대 품대의 구조와 세부 명칭에 관한 연구」, 『服飾』 61-10, 135~150쪽.

한편, 대대에는 착장했을 때 앞으로 오는 부분에 가느다란 끈이 달려는데, 이는 고대 뉴욕(紐約)의 흔적이다. 이 끈은 조선 전기부터 동다회(童多繪)를 썼으나(그림 13), 1713년(숙종 39년)에 왕의 복식 중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 심청색 광다회(廣多纒)로 바꾼다(그림 14).¹²⁾ 동다회일 때는 요부분 아래에 달려서 실제 용도가 없었지만, 광다회로 바뀌면서 요의 양쪽 끝에 달려 대대를 허리에 묶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효명세자 예진에서 광다회를 묶은 모습이 확인되고, 영친왕비 유물에도 심청색 광다회가 달려있다. 따라서 12장 면복용 대대에도 숙종 이후 규정된 형태를 반영하여 가느다란 끈 대신 심청색 광다회를 단다.

7. 수(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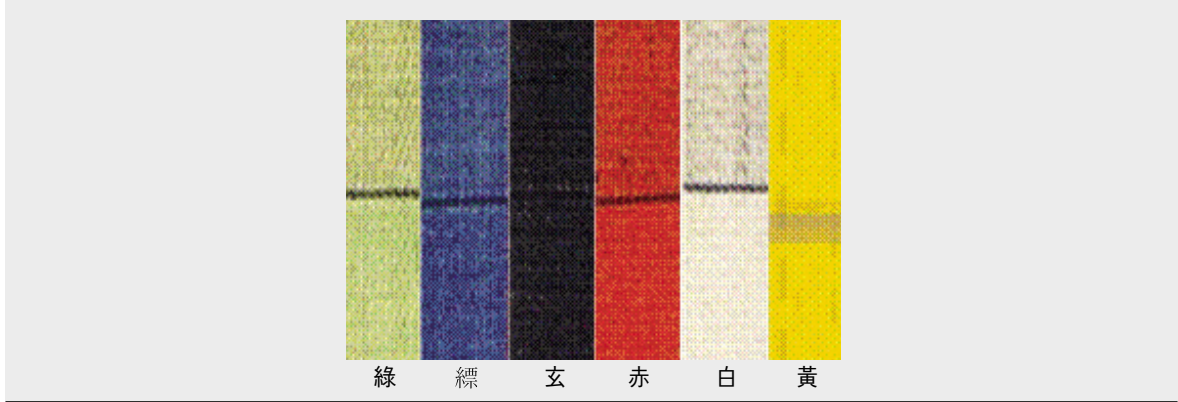
수(綬)는 조선전기 왕이 홍화금(紅花錦)을 썼는데, 『영조실록』 19년 4월 14일 기사에 의하면 중국에서 사온 것이 확인되고, 영조 22년 직물 금제를 내리면서 상의원(尙衣院)에서 직조하게 한다. 왕의 수(綬)는 무늬가 없이 적-청-현-표(纁)-녹의 5색을 써서 총 15가닥(條)으로 하고, 아래에 망(網)을 짠 후 나머지 실을 아래로 드리우도록 규정한다. 면복에서 패옥 받침은 수(綬)와 같은 색을 쓰는 전통이 있는데, 효명세자 예진의 패옥 받침에서 위 5색이 확인되어 세자도 왕과 같은 규정을 적용했을 수 있다. 영친왕비 후수 유물도 같은 형태인데, 다만 영조 22년에 5색을 3번 반복한 총 15가닥으로 규정했음에 비해 영친왕비 후수는 적-백-표-녹의 4색을 5번 반복하고 마지막에 적색만 한 번 더 반복하여 총 21가닥이 되게 한 점이 다르다.

『대한예전』에서 황제 면복의 수(綬)는 황-백-적-현-표-녹의 6색을 쓰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영조 22년 이후 대한제국까지 유지된 형태에 의거해 세로로 줄무늬가 있게 하되, 6색을 영친왕비 유물과 같이 5번 반복하고 마지막에 황색을 한 번 더 반복하여 총 31가닥이 되게 한다. 색의 기준점은 효명세자 예진에서 오른쪽부터 시작하여 왼쪽으로 가는 것이 확인되므로,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여 황색을 먼저 둔다. 색의 고증에서 유의할 것이 표(纁)이다. ‘표’의 사전적 의미는 옥색이다. 그런데 효명세자 예진에서는 살색 계열로 표현되어 있고(그림 15), 영친왕비 유물 중의 ‘면복패옥’이라 쓰여있는 패옥의 받침에는 백색을 썼으며(그림 16), 영친왕비 후수에서는 청색을 썼다(그림 17). 영친왕비 후수는 적-백-표-녹을 쓴 황태자 후수 제도를 적용한 것이고, 영친왕비 유물과 효명세자의 면복패대는 적-청-현-표-녹을 쓴 조선시대 제도를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표색은 청색, 백색, 살색으로 나타나는데, 대한제국시대에는 청색과 백색을 썼다. 그런데 표색을 백색으로 설정할 경우, 제도상의 백색과 색이 중복된다. 따라서 대한제국 황제 후수의 표색은 청색을 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그림 18).

이 외, 『대한예전』 규정에는 없으나 영친왕비 유물과 중국 역대 황제의 제도를 참고하여 환(圓)을 둔다. 재료는 옥으로 하고, 명대의 제도에 근거해 3개를 쓴다.

12) 『肅宗實錄』 39年 5月 5日(辛巳): 『英祖實錄』 4月 14日(丁酉).

수는 본래 대대와 분리된 구성품이지만, 대한제국시대에 착장의 편의를 위해 수를 대대에 고정된 것이 유물에서 확인되므로 복원에서 이를 따른다.



〈그림 18〉 대한제국 황제 후수의 색

8. 폐슬(蔽漆)

폐슬은 『대한예전』에서 “하상의 색을 따른다(隨裳色)”라고 했으므로 혼색을 쓴다. 재료는 『국조오례의』에 증(繒), 의궤에 초(綃)로 나타난다. 폐슬의 재료는 하상과 같은 감을 쓰는 것이다.

형태는 사다리꼴이고, 상하좌우의 사방(四方)에는 몸판과 같은 색의 가선을 낸다. 가선은 『예기(禮記)』 「잡기(雜記)」의 경문(經文)과 정현의 주(注)에 의하면 위에 있는 것은 ‘영(領)’, 양쪽 옆에 있는 것은 ‘비(紕)’, 아래 도련에 있는 것은 ‘준(純)’이라 한다. 『국조오례의』와 조선 후기 의궤에도 비와 준이 같은 부분의 명칭으로 기록된다.

가선의 봉제선 위에는 ‘순(紃)’이라 부르는 오색으로 짠 끈목(五色多繪)을 붙인다. 고대 예서에서는 사방에 모두 붙인다고 하였고 『대한예전』 도식도 이와 같지만, 조선시대 의궤와 효명세자 예진에서 양쪽 옆과 아래에만 붙이고 위는 생략한 것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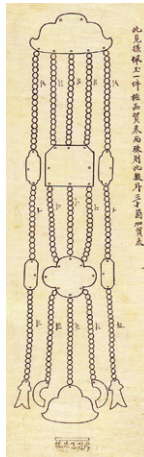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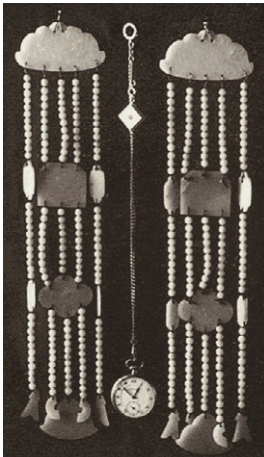
폐슬은 허리띠에 걸어서 착용하므로, 위쪽에 고리[鉤]가 필요하다. 도식 자료를 보면 조선시대에는

금속으로 만든 구부러진 고리를 폐슬에 직접 부착하였는데, 영친왕비 유물에는 10cm 정도의 직물로 만든 끈이 있고 그 끝에 금속으로 만든 고리가 있다.

9. 패옥(佩玉)

패옥은 서로 다른 형태로 된 여러 개의 옥으로 만든다. 맨 위에는 형(衡)[珩]이 있고, 그 아래에 우(瑀)와 거(瑒), 맨 아래에 충아(衝牙)와 황(璜)이 있다. 또 명대에 본래의 패옥에는 없던 옥화(玉花)와 옥적(玉滴)이 추가되고, 『대한예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현재 대한제국의 패옥은 사진, 도식, 유물로 모두 남아있다. <그림 19 좌>는 순종황제 장례시 사용한 패옥이고, <그림 19 중>은 장서각에 소장된 도식이며, <그림 19 우>는 영친왕비 유물 중의 '면복패옥(冕服佩玉)'이다.¹³⁾ 영친왕의 면복 패옥이 영친왕비 유물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세 패옥의 기본 형태는 모두 같아서, 위에 언급한 세부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고 옥화 양옆에 작은 옥이 추가되었다. 옥과 옥을 연결하는 구슬의 수는 세 자료가 조금씩 다른데, 순종황제 장례시 사용한 패옥이 가장 중요한 자료이므로 이를 따른다. 『대한예전』에서는 옥에 운룡문을 새기도록 규정했지만, 순종황제의 패옥에는 무늬가 없다.

패옥에는 '소수(小綬)'라 부르는 받침('패대'라고도 함)이 있다. 소수는 수(綬)와 같은 색을 써서 같은 모양으로 만들되, 폭이 좁기 때문에 색을 여러 번 반복하지는 않는다. 영친왕비 유물 중의 '면복패옥'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적-청-현-표-녹-적-청-현-표의 순서로 총 9가닥으로 되어 있다. '9'는 황태자와 왕을 상징하는 숫자이다. 때문에 대한제국 황태자와 조선의 왕은 면관에 9류를 하고 무늬는 9장을 썼다. 황제를 상징하는 숫자는 '12'이다. 때문에 면관에 12류를 하고 무늬는 12장을 쓴다. '면복패옥'의 소수를 9가닥으로 한 것은 이러한 상징을 형상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따라서 12장 면복의 소수는 황-백-적-현-옥-녹의 6색을 두 번 반복하여 총 12가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림 19> 대한제국시대 패옥
 좌 - 순종황제 장례시 사용한 복원품 사진.
 중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패옥 도식.
 우 - 영친왕비 유물 중 '면복패옥'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3) 이 외 세종대학교박물관 소장의 중요민속문화재 제46호 '전(傳) 고종패옥' 유물이 있으나, 형태가 다르고 패옥 받침의 색도 4색만 써서 황제 패옥의 제도와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으므로 고찰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버선(襪)

버선은 『대한예전』에서 주색(朱色)으로 규정하였다. 모양은 영친왕비의 버선 유물에 근거하여, 부리 뒤쪽을 트고 그 끝에 2가닥의 끈을 다는 형태로 한다.

11. 석(寫)

석은 『대한예전』에서 신을 적색으로 하고, 황색 끈목으로 가선을 두르며, 현색으로 술을 다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림 7>의 유물은 규정과 같은 형태이다. 복원품도 이 유물을 따른다.

12. 방심곡령(方心曲領)

방심곡령은 위쪽의 곡령(曲領)부분과 그 아래의 방심(方心)부분으로 나뉜다. 곡령은 둥글게 하여 목에 걸 수 있게 하고, 방심은 가운데가 빈 네모난 모양으로 한다. 또 곡령은 착장했을 때 오른쪽 어깨쯤 오는 부위에 ‘단추(團樞)’를 단다.

몸판의 색은 흰색이다. 곡령의 양 옆에는 끈(纓)을 다는데, 착장했을 때 왼쪽은 녹색이고 오른쪽은 홍색이다.

13. 규(圭)

규는 『대한예전』에 백옥(白玉)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그림 20>의 순종황제 규를 보면 아래는 모가 나고 위는 뾰족하다. 『대한예전』에는 표면에 4개의 산(山) 모양을 새기도록 규정했지만, 사진에는 무늬가 없다.

규는 손에 잡는 물품이므로, 아래를 직물로 감싸 손에 잡기 편하게 하였다. 조선에서는 이를 ‘싸개[甘伊]’라 하였고, 『대한예전』에서 황색으로 규정한다.



<그림 20> 황제의圭
(순종황제 장례시 사용)

Ⅳ. 12장문의 형태 및 배치

1. 무늬의 형태

1) 삼신(三辰): 일(日), 월(月), 성신(星辰)

일은 태양, 월은 달, 성신은 별을 나타낸다. 북제(北齊)의 안지추(安之推)가 쓴 『안씨가훈(安氏家訓)』 「귀심(歸心)」에서는 “일은 양의 정수이고, 월은 음의 정수이며, 성신은 만물의 정수이다(日爲陽精, 陰爲陰精, 星爲萬物之精)”라고 하였다. 이 셋을 합해서 ‘삼신(三辰)’이라 한다. 면복에서 삼신 무늬는 황제만 쓸 수 있었으므로 조선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대한제국에서 사용된다.

<그림 1>의 순종황제를 보면 양쪽 어깨에 일과 월이 있고, 그 안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된

다. 그런데 자료의 부족으로 무늬를 고증하기가 매우 곤란하고, 성신은 사진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삼신 무늬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대한제국에서 그 모양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현재 삼신을 무늬로 넣은 대한제국의 깃발이 남아있어 이를 참고할 수 있다(그림 21). 『주례』 「사복(司服)」 정현 주(注)에 의하면 고대 중국에서 본래 면복에 12장문을 모두 표현했었는데 주(周)에서 그 중 삼신을 깃발에 표현하고 면복에는 9장만 썼었다. 이는 12장문 중 삼신은 면복과 깃발을 넘나들면서 표현되기도 했음을 의미하므로, 면복의 삼신 무늬 고증을 위해 깃발의 무늬를 참고하는 것이 역사적인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제국의 일기에는 가운데에 일 무늬가 있는데, 테두리를 이중으로 하고 그 안에 새가 날개를 활짝 펴서 나는 모습이다. 일 무늬 안에는 새를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도 이런 전통을 따르고 있다. 다만 새의 다리가 3개인 삼족오(三足鳥)인 경우도 있고 2개인 이족오(二足鳥)인 경우도 있는데, 일기 속의 새는 이족오이다. 월기 역시 가운데에 월 무늬가 있다. 월 무늬에는 토끼(때로 방아를 찧고 있는 토끼로 표현됨)나 두꺼비를 표현하는데, 이 월기에서는 토끼를 표현하였다. 토끼는 웅크린 자세에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다. 일과 월의 무늬는 이 일기와 월기 속의 이족오와 토끼를 따르고, 동그라미는 순종황제 사진과 일기를 근거로 테두리를 이중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색을 보면, 순종황제 사진에서 왼쪽 어깨는 바탕이 어둡고 오른쪽 어깨는 밝다. 일 무늬는 대개 붉은색을 쓰므로, 흑백 사진에서 어둡게 나오게 된다. 따라서 어두운 쪽은 붉은색을 바탕으로 한 일 무늬, 밝은 쪽은 흰색을 바탕으로 한 월 무늬로 볼 수 있다. 전통 사상에서 왼쪽은 양을 상징하고 오른쪽은 음을 상징한다. 따라서 왼쪽 어깨에 양을 상징하는 일을 표현하고, 오른쪽 어깨에 음을 상징하는 월을 표현한다. 이러한 무늬 배치는 <그림 2>의 『명궁관복의장도』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깃발에는 새와 토끼의 색이 충분히 표현되어 있지 않다. 특히 새는 중국 황제의 옷에 표현된 바로는 매우 다채로운 색을 쓰는 전통이 있다. 따라서 중국 황제가 쓴 색을 참고로 복원하는데, 명대까지의 면복에서는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고 청대 황제의 용포(龍袍)에 표현된 12장문 중의 일 무늬에서 오채색의 새가 확인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이족오의 색을 다채(多彩)하게 표현한다. 토끼는 본래 흰색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월기 안의 색을 그대로 따른다.

성신(星辰)은 중국 황제의 면복에서 별 3개가 삼각형 구도에 선으로 이어진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명대에는 별 5개가 각각 떨어져 옆으로 나란한 형태로 나타난다. 『대한예전』은 후자와 같다. 따라서 별의 모양은 동그라미로 표현하고, 5개를 나란히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국 황제 면복과 『대한예전』 도식, 그리고 대한제국 시대의 별을 표현한 오성기(五星旗), 북두칠성기(北斗七星旗), 미성기(尾星旗), 실성기(室星旗) 등에 모두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다(그림 21).¹⁴⁾

다음으로 고증할 것은 색이다. 성신의 별 5개 즉 오성(五星)은 오행(五行)에 대응시킬 수 있다. 오행의 색인 목(木)-청(靑), 화(火)-적(赤), 토(土)-황(黃), 금(金)-백(白), 수(水)-흑(黑)은 상생(相生)

14)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朝鮮時代 宮中服飾』, 1981, 172~17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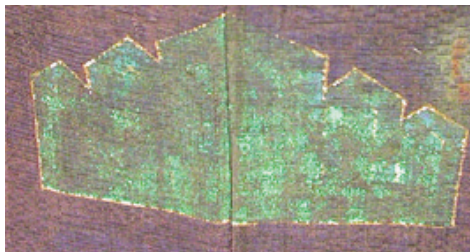
과 상극(相剋)의 운용 원리에 따라 색의 순서를 정할 수 있다. 상생은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 금생수(金生水), 수생목(水生木)의 원리에 따라 청-적-황-백-흑으로 정해진다. 상극은 화극금(火克金), 금극목(金克木), 목극토(木克土), 토극수(土克水), 수극화(水克火)의 원리에 따라 적-백-청-황-흑으로 정해진다. 현재 면복에 쓴 성신 무늬의 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림 2>의 『명궁관복의장도』가 유일하다. 여기에는 왼쪽부터 청-적-황-백-흑의 순서로 되어있고, 이는 상생의 원리에 따른 색 배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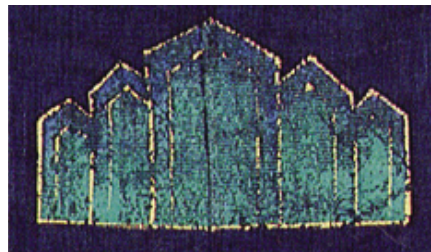
日旗 속의 일 月旗 속의 월 五星旗 속의 성신
 <그림 21> 대한제국시대 일, 월, 성신 무늬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2) 산(山)

대한제국 시대 면복의 산 무늬는 구장복 유물에 표현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따른다. 5개의 봉우리로 구성되고, 녹색 혹은 녹색과 청색이 섞인 색으로 그려져 있다. 가장자리 선은 금색으로 둘렀다.



<그림 22> 갑사 구장복의 산 무늬



<그림 23> 은조사 구장복의 산 무늬

3) 용(龍)

용은 순종황제 사진, 구장복 유물,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용무늬판 등을 참조할 수 있다. <그림 24>의 무늬판에는 용의 몸통을 전체적으로 휩싸는 화염이 표현되어 있지 않아,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 이 판을 찍어서 형태의 기준을 삼고 화염은 나중에 추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무늬판에 화염이 없는 점만 제외하면 이들 세 자료의 용 모양은 크게 차이가 없다. 따라서 모양과 색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림 25>의 구장복 유물의 용을 기준으로 복원한다. 행룡(行龍)의 형태를 한 오조룡(五爪龍)이고, 몸통은 황색, 화염은 붉은색이다.



〈그림 24〉 용 무늬판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그림 25〉 구장복의 용 무늬



4) 화충(華蟲)

화충은 오채색을 지닌 꿩이다. 순종황제 사진, 구장복 유물, 효명세자 예진에 나타난다. 순종황제 면복의 무늬는 긴 꼬리를 가진 화충과 구름이 있는 형태이다. 〈그림 26〉의 구장복과 예진에는 구름이 없고, 오채색 화충이 한쪽 다리를 들고 있다. 따라서 복원은 오채색의 화충이 한쪽 다리를 들고 있고, 그 아래에 구름이 있는 형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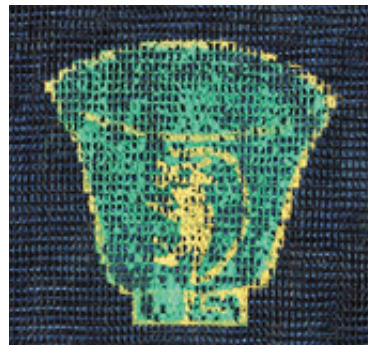
화충의 색은 유물과 예진을 근거로 하였고, 구름의 색은 명대 곤복 착용 황제 초상화를 참조한다. 모두 오채색을 화려하게 쓴다.



〈그림 26〉 구장복의 화충 무늬

5) 종이(宗彝)

종이 무늬는 제기(祭器) 위에 호랑이와 원숭이를 표현한다. 〈그림 27〉의 구장복 유물과 효명세자 예진에 보이는데, 유물의 형태를 기본으로 한다. 호랑이는 붉은색에 꼬리를 앞으로 하고, 원숭이는 황색에 꼬리를 뒤쪽으로 들어 올려 코를 막는 형상이다. 제기는 녹색이다.



〈그림 27〉 구장복의 종이 무늬

6) 조(藻)

조는 오채색을 지닌 물풀(水草)이다. 『대한예전』에서 하상에 표현되어 있고, 조선시대 자료에도 나타나지만 모양이 매우 단순하여 참조하기가 어렵다. 이에 비해 명대 황제 곤복에는 상세한 형태가 나타난다. 청대 황제 용포에 쓴 12장문에도 있기는 하지만, 명대의 무늬는 둥그렇고 청대의 무늬는 사각형 구도인데 『대한예전』 도식은 명대와 같은 둥그런 구도이다. 따라서 모양과 색을 명대 곤복의 무늬를 근거로 하였다. 풀이 여러개의 줄기를 뻗으며 휘감기는 구도이고, 색은 오채색을 쓴다.

7) 화(火)

화는 화염이 위로 올라가는 모양으로 나타난다. 삼각형 구도, 둥그런 모양, 나뭇가지처럼 뻗은 형태 등으로 표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뭇가지처럼 뻗은 형태로 표현했음을 <그림 28>의 구장복 유물과 효명세자 예진을 통해 알 수 있다. 색은 붉은색이다.



<그림 28> 구장복의 화 무늬

8) 분미(粉米)

분미는 흩어져 있는 쌀알을 표현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영조 이전에 둥그렇게 표현했다가, 영조 때 『국조상례보편』의 복완용(服玩用) 도식 이후 네모 형태로 나타난다. 복원 도식은 『대한예전』에 둥그렇게 표현되므로 이를 따랐다. 색은 흰색이다.

9) 보(黼)

보는 도끼이다. 조선시대 전례서와 의궤에는 도끼 몸통에 자루가 끼워진 형태로 나타나고, 『대한예전』도 같다. 조선시대 의궤 도식에서는 도끼날은 흰색, 몸통은 청흑색, 자루는 흰색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도식이 매우 단순하여 구체적인 색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편 명 신종 황제의 정릉에서 출토된 면복의 하상에 보 무늬가 있다. 전체적인 모양은 조선시대의 도식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복원 도식에서는 모양과 색을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릉 유물을 참조하였다. 몸통은 청흑색으로, 도끼날과 자루는 황백색으로 한다.

10) 불(黻)

불 무늬는 '이(已)' 자가 등을 마주 댄 모습으로 표현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형태상의 차이는 없다. 하상과 중단에 배치하는데, 양자의 색이 다르다. 하상의 색은 우리나라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고, 중국 자료에서 청색과 흰색을 쓴 것이 확인된다. 중단의 색은 구장복 안에 끼워진 채 남아있는 2점의 유물에서 확인되는데, 모두 황색이다. 따라서 하나는 청색과 흰색, 다른 하나는 황색의 2중으로 복원한다.

2. 무늬의 배치

12장 무늬는 면복에서 상의, 하상, 중단, 폐슬에 배치된다.

상의에는 일, 월, 성신, 산, 용, 화충의 6장문을 놓는다. 표현방식은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양(陽)을 형상화하기 위해 그림으로 그린다. 일과 월은 양쪽 어깨에 위치한다. 일은 양을 상징하고, 왼쪽이 양에 해당되므로 왼쪽 어깨에 배치한다. 월은 음을 상징하고, 오른쪽이 음에 해당되므로 오른쪽 어깨에 배치한다. 성신은 등판의 위쪽에 놓는다. 일찍이 수(隋) 문제 대업원년(605년)에 “좌우 어깨 위에 일과 월을 각 하나씩 놓고, 뒷깃 아래에 성신을 놓는다”¹⁵⁾라고 위치를 정하였고, 『대한예전』의 도식도 같은 위치에 성신이 있다. 산은 성신의 아래, 등판의 중앙에 위치한다. 용과 화충은 소매에 위치하는데, 용은 1마리이고 화충은 3마리이다. 용은 머리와 꼬리가 안쪽으로 향하고, 화충은 머리가 바깥쪽으로 향한다.

하상에는 종이, 조, 화, 분미, 보, 불(청백색)의 6장문을 놓는다. 표현방식은 음(陰)을 형상화하기 위해 지수를 놓는다. 모두 전상(前裳)에 배치하고, 각기 2개씩이다. 그 중 종이는 호랑이와 원숭이가 마주보게 하고, 보는 도끼날이 마주보게 한다.

중단에는 깃에 황색 불 무늬를 놓는다. 『대한예전』 제도에서는 총 12개로 규정되고, 이는 『대명회전』 “가정팔년 정” 제도를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대명회전』과 『명사』 「여복지」의 “영락삼년 정” 제도에서는 총 13개를 쓰는 것으로 규정되는데, 『명사』 「여복지」 “가정팔년 정” 내용에서 “중단과 규는 모두 영락연간의 제도와 같다(中單及圭, 俱如永樂間制)”라고 하였다. 『대명회전』의 내용이 오기인 것이다. 따라서 명대 중단의 불 무늬는 항상 13개를 썼고, 이에 근거해 도식을 복원하였다.

폐슬은 『대한예전』 제도에서는 위쪽의 용 1마리와 아래쪽의 화(火) 3개로 규정되고, 도식에는 용 2마리, 화 1개, 산 1개가 표현되어 있다. 제도는 『대명회전』을 따르고 도식은 『삼재도회』를 따르면서 발생한 모순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한예전』의 복제는 기본적으로 『대명회전』을 따른다고 밝혔다. 따라서 복원 도식은 제도를 따라 용 1마리와 화 3개를 표현하였다.

Ⅵ. 결론

본 글은 현행 종묘제례 등의 중요한 전통의례에 착용하는 12장 면복이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이은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한제국 황제의 12장 면복을 면밀히 고증하고 이를 근거로 도식으로 제시하였다. 대한제국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대한제국의 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조선과 명의 자료를 참조하여 복원한 12장 면복의 형상을 구성품과 무늬로 나누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5) 『隋書』 「禮儀志」7: “於左右膊上爲日月各一, 當後領下而爲星辰.”

구성요소는 면관, 상의, 하상, 중단, 혁대, 대대, 수(綬), 폐슬, 패옥, 버선, 석(寫), 방심곡령, 규(圭) 등 총 13품목을 고증하여 도상으로 복원하였다. 면관은 무(武), 연(纒), 형(衡)[梁], 비녀, 류(旒), 충이(充耳), 관끈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특히 면관의 너비를 좁게 할 것, 류(旒)의 옥은 총 12알을 쓰는데 위에서부터 황-적-청-백-흑-홍-녹-황-적-청-백-흑색의 순서로 할 것, 옥은 1알씩 각각 떨어지게 할 것, 충이의 전(璜)은 백옥 2개를 쓸 것, 관끈은 영(纓) 2가닥만 쓸 것 등을 제안하였다. 상의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구장복 유물과 같은 형태로 한다. 하상은 전상 3폭과 후상 4폭이 떨어지게 하고, 같은 색의 가선과 말기를 단다. 중단은 구장복 유물에 끼워져있는 형태와 같게 한다. 혁대는 황색 혹은 붉은색으로 가죽을 감싼 후 용무늬를 투각한 옥 띠돈 총 20개를 붙인다. 대대는 요(縹) 부분과 신(紳) 부분으로 구분된 형태로 하고, 백색, 홍색, 녹색으로 몸판과 가선을 하며, 심청색 광다회로 끈을 한다. 수(綬)는 영조 22년 이후 상의원에서 직조한 세로줄무늬 몸판에 망(網)을 드리운 형태로 하는데, 황-백-적-현-옥-녹의 6색으로 총 31가닥의 줄무늬를 표현하고 옥환(玉環) 3개를 놓는다. 폐슬은 혼색으로 몸판을 하고, ‘영(頌)’, ‘비(紕)’, ‘준(純)’ 등의 가선을 사방에 대며, 양 옆과 아래 가선의 봉제선 위에 순(紃) 즉 오색다회를 붙인다. 패옥은 형(衡)[珩], 우(瑀), 거(踞), 충아(衝牙), 황(璜), 옥화(玉花) 옥적(玉滴)으로 구성하고, 옥에는 무늬를 표현하지 않는다. 패옥 받침인 소수(小綬)는 수(綬)와 같은 6색으로 총 12가닥을 표현한다. 버선은 붉은색으로 하고, 부리 뒤쪽을 트고 끈 2개를 단다. 석(寫)은 적색 신물에 황색 끈목과 현색 술 장식을 한다. 방심곡령은 흰색으로 몸판을 하고 녹색과 홍색의 끈을 단다. 규(圭)는 백옥으로 위를 뾰족하게 하고, 무늬는 없으며, 싸개[甘伊)는 황색이다.

무늬는 일(日), 월(月), 성신(星辰), 산(山), 용(龍), 화충(華蟲), 종이(宗彝), 조(藻), 화(火), 분미(粉米), 보(黼), 불(黻)의 총 12종을 고증하여 도상으로 복원하였다. 일(日)은 붉은색 둥근 무늬 안에 오채색 이족오(二足烏)가 날개를 펴고 나는 모습이고, 월(月)은 흰색 둥근 무늬 안에 흰색 토끼가 웅크리고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다. 성신은 둥근 모양의 별 5개가 옆으로 나란한 형태이고, 색은 오행 상생(相生)의 원리가 적용된 적-청-황-백-흑으로 한다. 산은 녹색 계열을 쓴 봉우리 5개, 용은 행룡(行龍)의 형태를 한 오조룡(五爪龍)을 몸판은 황색으로 하고 화염은 붉은색으로 표현하였다. 화충은 꿩이 한쪽 다리를 들고 구름 위에 서 있는 형태이고, 꿩과 구름은 오채색을 쓴다. 종이는 녹색 제기 위에 붉은색 호랑이가 꼬리를 앞쪽으로 한 형상과 황색 원숭이가 꼬리를 뒤쪽으로 들어 코를 막는 형상 하나씩 표현한다. 조(藻)는 풀이 여러개의 줄기를 뻗으며 휘감기는 구도로 하고, 색은 오채색으로 한다. 화(火)는 나뭇가지가 뻗은 모양으로 하고, 붉은색이다. 분미는 흰색 쌀이 둥그런 모양이다. 보(黼)는 도끼 몸통에 자루가 끼워진 형태로 하고, 몸통은 청흑색에 도끼날과 자루는 황백색이다. 불(黻)은 ‘이(已)’자가 등을 마주 댄 모습이고, 면복에서는 청색과 흰색으로 된 무늬와 황색으로 된 무늬의 총 2개를 쓴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고증한 내용에 근거해 구성 요소의 도상을 복원한 위에 12장문을 얹혀 12장 면복 도상을 완성하였다. 상의에는 일, 월, 성신, 산, 용, 화충의 6장문, 하상에는 종이, 조, 화, 분미,

보, 불의 6장문을 배치하고, 중단에는 13개의 황색 불(黻) 무늬를 배치하며, 폐슬에는 용 1마리와 화 3개를 배치한다.

본 글에서 제시한 도상은 실물 제작의 기준이 되어 전통에 바탕 한 한국 문화를 바르게 정립하고 세계인이 공유하는 데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日)	월(月)	성신(星辰)
		
산(山)	용(龍)	화충(華蟲)
		
종이(宗彝)	조(藻)	화(火)
		
분미(粉米)	보(黼)	하상용 중단용 불(黻)

〈그림 29〉 대한제국 황제 면복 12장 무늬 복원 도상

	
12류 면관(冕冠)	상의를(上衣)
	
하상(下裳)	중단(中單)
	
혁대(革帶) (鞞의 색은 홍색과 황색 모두 가능성 있음)	대대(大帶), 수(綬)
	
폐슬(蔽膝)	패옥(佩玉)
	
버선[襪]	석[烏]
	
방심곡령(方心曲領)	규(圭)

〈그림 30〉 대한제국 황제 12류 면관 12장 면복 복원 도상

12장 면복 재현작업 일지

박경자 경운박물관 부관장

2008년 경기여고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황후의 복식인 순종비 순정효황후 적의 재현을 시작하여 2010년 '아름다운 시작'으로 특별전을 하였다. 이어 2014년 이후 3년여에 걸친 작업 끝에 황제의 복식인 12장 면복을 재현하여 2017년 하반기 대한제국 120주년 기념 특별전 '대한제국, 복식에 깃든 위엄'으로 특별전을 하게 되었다.

12장 면복의 재현작업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왕의 9장복 조사를 시작으로 면복의 연구자인 단국대학교 최연우 교수의 자문과 사진자료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사진자료로는 12장 면복을 착용한 순종의 흑백사진 1장이 남아 있다. 문헌으로는 대한제국 개국 후 편찬한 전례서인 『대한예전』에 황제의 12장 면복을 문자로 된 제도과 도식으로 규정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9장복, 국립고궁박물관의 영친왕가의 유물들과 재현 보고서가 본 재현작업의 주요한 자료가 되었다. 이외에도 『대명회전』, 『삼재도회』, 명대의 정릉 출토 유물 도록과 대한제국의 자료들 참고하였다. 그러나 유물이 없는 상태에서 형태뿐만 아니라 색과 무늬 등을 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9장복의 장문 외에 추가되는 일·월·성신·장문과 그 외 여러 부분이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직물은 국립박물관 소장 9장복 2점 중 은조사 9장복 복원 및 재현 보고서의 자료를 조사하고 경운박물관 소장 동시대의 은조사 유물을 조사하여 경위사의 굵기와 밀도 등을 조절하며 3차례 제작작

업을 거쳐 유물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대대용 증은 수직기로 직조하였다. 수와 소수의 직물은 6색 오매주자직으로 문헌의 색을 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직물염색은 문헌의 기록을 바탕으로 국내산 수수와 오배자를 이용하여 현색과 혼색의 여러 가지 샘플을 준비하였다.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었던 9장복의 색과 비교하여 샘플 중에서 만족할 만한 색을 얻었다. 유물의 복원은 천연염색이 기본이 되지만 전시와 보관에 따른 견뢰도를 생각하여 화학염으로 레서피를 전환하여 염색을 의뢰하였다. 중단의 아청색은 화학염으로 염색 의뢰하였다.

작업과정에서 상의, 중단, 폐슬, 하상 등은 종이에 제도하여 1차 샘플을 만들어 치수와 모양을 조정하고, 직물로 2차 샘플을 만들어 장문 도안을 붙여 착장, 장문의 위치 및 크기를 결정하였다.

면류관 패옥 적석 제작, 망수 채조다회, 12장문 석채화 등 특수 기술을 요하는 면복의 구성요소는 장인들에게 의뢰하였다. 상의 중단 폐슬 하상의 지수 및 제작, 대대 후수 방심곡령 적말 등 침선 부분은 경운박물관 재현팀과 동문 비동문의 재능 기부가 있었다. 이러한 면복 구성 요소들의 완성은 각 분야별로 10여차례의 회의를 거쳤다.

전체적인 재현작업은 침선전문가 안인실 선생의 지도와 도움을 많이 받았다. 특히 이 재현작업은 동문 및 비동문의 재정적 협조가 있어 이루어진 결과이다.

2014년

- 9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왕의 면복 9장복 실건
국립중앙박물관 은조사 재현품 조사

2015년

- 1월 12장 면복 제작 기초 회의 이후 10여 차례 자문회의
- 2월 단국대학교 최연우 교수 방문
12장 면복 논문 조사 및 자료조사 시작
- 3월 경운박물관 소장 은조사 조사
(대신직물 대표 직물업자 임영우와 공동 조사)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9장복 재현 직물 자료조사
은조사, 증 제작 의뢰
- 4월 폐쇄 패턴 및 자수 문양 작업
- 5월 12장 면복 재현 4차 회의
12장 면복 직물, 하상, 폐쇄 색깔 및 면류관 조사
은조사 제작 완료 및 배송 받음
- 6월 문헌에 의한 현 현 천연염색 의뢰

2016년

- 5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9장복 유물과
재현품의 현 현 청색과 염색된 샘플 색 비교
천연염색을 화학염 레서피 전환 의뢰
- 8월 상의 중단 하상 및 폐쇄 원단 색상 완성
- 12월 은조사 염색 1. 2. 3차 염색 과정을 거쳐 샘플 색깔 확인

2017년

- 1월 염색업체 진주 남양염직에 염색 의뢰
면류관 1, 2차 회의에 3차 회의
- 중국 정릉 소장 12류 면관 구조 확인
- 2월 은조사 염색 완료
하상 샘플 제작 시작(화섬 노방 사용)
12장문 도안 확정 및 배치 시도
자수 명장 김태자 선생님 자문 의뢰
- 자수 기법, 실, 색 자문
상의 패턴 제작, 상의 샘플 만들기 시작
후수 관련 매듭 장인 이상숙 선생님 자문
12장문 석채화 가격 조율
- 석채화 샘플 확인후 결정하기로 함
장문 샘플 및 실습용 옷감 보냄
면류관 옷감 보냄(한국장신구 박물관)
- 흥색 은조사, 공단
- 3월 12장문 직물 및 문양 제공
샘플 제작 광목에서 화섬으로 변경
일본에 금사 주문
하상, 폐쇄 문양 및 자수실 색 확인
- 자수 샘플 시작
단대 최연우 교수와 회의
- 재현 준비 진행과정의 의문점 검토

- 3월 자수법, 폐쇄의 제작방법, 후수 대대 소재 및 색상 확정
하상 무늬 크기 재조정
장문 자수 도안 수정
석의 방울과 술의 색과 제작자 확인
금사 도착
- 4월 이상숙 선생님과 후수 관련 회의
단대 최연우 교수와 후수 및 장문, 후수의 색깔과
반복 횟수에 대한 의견 교환
- 5월 이상숙 선생님 후수 기증 취소로 인한 후수감 제작에
관한 협의 - 대신직물
4차 면류관 회의
임금회 망수 다회 연구소 방문, 망수 제작 의뢰
대신직물에 후수 색깔 샘플 전달
- 고궁박물관 재현품과 동일 치수
- 6월 부산 화해장 안해표 방문, 적석 주문, 황금색 색사 전달
12장 면복 상의 샘플 완성
대대 끈 직조 완료
적석에 사용되는 술 주문
하상 자수 한쪽 완성, 폐쇄 용문 자수 중
망수 제작용 색사 도착, 연사 들어감, 망수 문양 결정
상의 샘플 그림 위치 결정
- 7월 임금회 망수 다회 연구소 방문, 망수 문양에 대한 논의
- 망수, 폐쇄 오색 다회, 방심곡령 끈목 의뢰
이상숙 선생님께 '화' 문의 형태 확인
12장 면복의 문양 크기 및 위치 결정, 인쇄,
샘플로 상의에 부착, 착장 시도
대대 끈 직조 완료, 대대 용 '증' 직조 시작
은조사 상의 작업 시작 - 마름질, 바느질 보완
망수 문양 결정 - 고궁박물관 영친왕의 유물과 같이
진행하기로 결정
12장문 중 용문 자수 수정안 회의 - 북촌 한국불교미술원
후수용 직물 완성
- 8월 면류관 공단 염색
12장 면복 상의 완성, 옆선 수정
아랫단 주름 분 조정
중단 마름질 시작, 중단 부속 만들기
제작한 증 정련, 염색 보냄
폐쇄 용문 자수 마지막 점검
패옥 주문
면관 공단 재염색
- 9월 망수 완성, 후수 망수 재작업, 후수 바느질 시작, 망수 부착
대대 제작, 패대 제작, 망수 부착, 방심곡령 제작 시작
폐쇄 형태 수정, 하상 보완 작업
중단 불문 크기 결정
- 9월 14일 폐쇄 완성, 적말과 청말 제작
- 9월 16일 상의 12장문 완성, 중단 불문 완성
일월 문양 문체 최고수와 상의
대대 완성, 중단 완성, 방심곡령 단추 달기,
상의 고리 및 부속품 부착
- 9월 17일 재현유물 촬영



유물 목록

대한제국

- 1 고종 가상존호 옥책 高宗 加上尊號 玉冊
Jade Investiture Book of
Ex-Emperor 11p
- 2 고종 가상존호 옥보 高宗 加上尊號 玉寶
Royal Seal of Ex-Emperor 11p
- 3 상준 象尊
Elephant Shaped Ritual Liquor Container 15p
- 4 희준 犧尊
Cow Shaped Ritual Liquor Container 15p
- 5 운접 雲帖
Ritual Saucer with Cloud Ornaments 15p
- 6 보 簋
Rectangular Ritual Grain Vessel 15p
- 7 황이 · 황이대 黃彝 · 黃彝臺
Ritual Liquor Container with Golden
Eyes Motif 15p
- 8 가이 · 가이대 鬯彝 · 鬯彝臺
Ritual Liquor Container with Grain
Stalk Motif 15p

황실 복식

황제 복식

- 9 12류 면관 十二旒 冕冠
Twelve Beads String Crown 21p
- 10 상의 上衣
Outer Robe 22p
- 11 중단 中單
Inner Robe 28p
- 12 방심곡령 方心曲領
Round Shaped Neck Band with Squared
Decoration 30p

- 13 폐슬 蔽膝
Ceremonial Apron 31p
- 14 하상 下裳
Ceremonial Skirt 33p
- 15 대대 · 후수 大帶 · 後綬
Ceremonial Belt and Back Drapery 35p
- 16 패옥 佩玉
Jade Ornament on Each Side 36p
- 17 적말 赤襪
Red Socks for Emperor 37p
- 18 적석 赤舄
Red Shoes for Emperor 37p

황후 복식

- 19 황후 적의 皇后 翟衣
Ceremonial Robe for Empress 40p
- 20 하피 霞帔
Decorative Sash 42p
- 21 폐슬 蔽膝
Ceremonial Apron 44p
- 22 대수머리 수식 大首 首飾
Various Hairpins Suited with the
Big Wig 45p
- 23 대대 · 후수 大帶 · 後綬
Ceremonial Belt and Back Drapery 46p
- 24 패옥 佩玉
Jade Ornament on Each Side 47p
- 25 청말 靑襪
Blue Socks for Empress 48p
- 26 청석 靑舄
Blue Shoes for Empress 48p

- 27 순정효황후 휘지 純貞孝皇后 徽旨
Permission Letter of Empress
for the Foundation of Kyunggi Girls'
High School 49p

왕실 복식

의친왕비

- 28 원삼 圓衫
Ceremonial Robe for Women 54p
- 29 화관 花冠
Ceremonial Coronet 56p
- 30 당의 唐衣
Ceremonial Jacket for Women 57p
- 31 스란치마 膝欄赤^마
Ceremonial Skirt for Women 57p
- 32 새양머리댕기 唐只
Hair Ribbon 59p
- 33 금원앙노리개 鴛鴦單作佩飾
Pendant with a Pair of Golden Birds
Ornament 59p

맹현가

- 34 조복 朝服
Ceremonial Court Attire for Officials 63p
- 35 단령 團領
Uniform with Round Neck for Officials 65p
- 36 원삼 圓衫
Ceremonial Robe for Women 67p
- 37 물목 物目
Bridal Gift List 68p
- 38 탁상시계 桌上時計
Table Clock 68p

- 39 혼서 婚書
Letter for Marriage 69p
- 40 발기 件記
List of Ceremonial Schedule 69p

왕실 집기

- 41 은제그릇
Silver Wares 72p
- 42 은제그릇과 칠기받침
Silver Bowls & Lacquered Stand 73p
- 43 화병
Silver Vase 74p
- 44 베틀함
Inkstone Case 75p
- 45 합
Bowl with a Lid 76p
- 46 은제집기
Silver Wares 76p
- 47 영친왕 7세 때 빚은 접시
Ceramic Dish Made by Prince Young 76p
- 48 컵과 컵받침
Cups & Saucers 77p
- 49 보시기
Ceramic Bowl 78p
- 50 은제집기
Silver Wares 78p
- 51 은제집기
Silver Wares 78p
- 52 은제집기
Silver Wares 79p

- 53 은제집기
Silver Wares 79p
- 54 접시
Ceramic Plates 80p
- 55 은제집기
Silver Wares 80p
- 56 은제집기
Silver Wares 80p
- 57 은제접시
Silver Dish 81p
- 58 은제집기
Silver Wares 81p

대한제국 복식의 근대화

간재 전우

- 59 장보관 章甫冠
Scholar's Hat 86p
- 60 장보관 章甫冠
Scholar's Hat 86p
- 61 치포관 縑布冠
Black Headdress 87p
- 62 정자관 程子冠
Nobleman's Hat 88p
- 63 망건 網巾
Headband 88p
- 64 정자관 程子冠
Nobleman's Hat 89p
- 65 쓰개 首飾
Headdress 90p
- 66 쓰개 首飾
Headdress 90p

- 67 쓰개 首飾
Headdress 90p
 - 68 갓 黑笠
Black Hat 91p
 - 69 갓 黑笠
Black Hat 91p
 - 70 갓집
Hat Case 91p
 - 71 방령깃 포
Ceremonial Robe 93p
 - 72 지팡이 杖
Walking Stick 94p
 - 73 포백대 布帛帶
Fabric Belt 94p
 - 74 하상 下裳
Ceremonial Skirt for Man 95p
 - 75 하상 下裳
Ceremonial Skirt for Man 95p
 - 76 복건 幅巾
Hood 96p
 - 77 세조대 細條帶
Woven Belt 96p
 - 78 도포 道袍
Nobleman's Robe 97p
- 충정공 민영환**
- 79 충정공 구군복 忠正公 具軍服
Min Youngwan's Robe with Different
Color Sleeves 100p
 - 80 충정공 도패용대 忠正公 刀佩用帶
Min Youngwan's Sword Belt 102p

- 81 충정공 견장 忠正公 肩章
Min Youngwan's Epaulet 102p
- 82 충정공 식서 忠正公 飾緒
Min Youngwan's Metallic Decorative
Code 102p
- 83 충정공 정장 忠正公 正裝
Min Youngwan's Formal Suit 103p

유길준

- 84 유길준 단령 俞吉濬 團領
You Giljun's Uniform with Round Neck 106p
- 85 조끼
Vest 108p
- 86 허리띠 劍帶
Sword Belt 108p
- 87 고관예복-상의 高官禮服-上衣
High Official's Uniform - Top 109p
- 88 고관예복-하의 高官禮服-下衣
High Official's Uniform - Bottoms 109p









로비전시 : 서현강 사진전 <덕수궁 전경>

‘대한제국, 복식에 깃든 위엄’ 전시회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립고궁박물관 · 고려대학교박물관
이해경님(36회 동문) · 이남주님(45회 동문) · 전봉희님

